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APR 22 1983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No.1113 1983년 4월21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Thursday, April 21, 1983

한국일보
토 론 토

토론토발행인 : 김영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83년 연방예산안 발표—

고용증대에 48억$ 투입

기업에 도움·주택구입에 보조

(오타와)마크·라롱 연방재무장관은 19일밤 하원에서 대규모 고용창출과 기업체에 대한 세금감면, 연방판매세 인상등을 포함한 83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라롱장관은 이날 80분간에 걸친 연설을 통해 이번 예산안을 "경기회복 예산안"이라고 부르면서 정부의 연 5-6% 물가인상억제정책에 협력, 전국민이 경제회복을 위한 총체적 노력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연설의 상당부분을 실업문제에 언급하면서 정부는 향후 4년간에 걸쳐 고용증대를 위해 48억달러를 방출하겠다고 밝혔다.

동예산안에 따르면 48억달러중 24억달러는 공항·도로·항만시설등의 보수, 연구및 개발증대, 관광및 자원개발, 선박및 통신기재구입등 100여사업에 지출된다.

이외에 공장및 시설확장에 투자하는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4년간에 걸쳐 나머지 24억달러에 해당하는 세금감면혜택을 주어 이들로하여금 고용을 증대시키게 할 계획이다.

연방관리들은 이같은 예산계획에 따라 내년말까지 약12만개의 일자리(job)가 창출될 것을 예상했다. 지난 3월말 현재 캐나다의 실직자수는 전노동력의 12.6%인 166만명이다.

정부는 고용증대를 위한 자금조달방안의 하나로 일부세금을 인상시킨다.

예산안에 따르면 84년 10월1일부터 88년말까지 연방판매세를 현행 9%에서 10%로 인상, 총 24억달러의 세수증대를 꾀한다.

예산안에 포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음 자기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3,000씩의 보조를 5월말까지 연장한다. 단 새집구입에 한한다.

◉주택수리 보조계획을 84년3월31일까지 연장, 중산층및 저소득층가정이 집을 고칠 때 수리비의 30%, 최고 3천달러까지 보조한다.

◉자녀부양공제액을 자녀당 종전의 1천달러에서 $2,000으로 올린다. 가족당 최고 $8,000까지 허용.

◉자녀 세금크레딧을 자녀당 $343. 단, 연봉 $4만이상의 소득자로 자녀가 2명 미만일 때는 혜택이 없다.

◉해외 여행자의 연간 면세규모를 2배로 늘려 $300까지 올린다.

◉케이블 TV및 페이TV 가입자에게 6%의 세금을 부과한다.

◉의료비및 자선기부금 기본공제액 1백달러 제도를 내년부터 취소한다. 단 이런 비용은 영수증 첨부에 한해 세금감면혜택을 준다.

◉81년말 이후부터 자기소유 집을 갖지 않은 자로서 85년 이전에 집과 가구를 사는 자는 주택구입예금계획(RHOSP)을 통해 1년에 최고 1만달러의 과세대상액을 감면 받는다. 예를 들면 RHOSP에 3천달러를 예금한 자가 집을 사는 경우 자기 수입액에서 7천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낸다. 집과 함께 기본가구및 가정기구를 사는 경우도 혜택을 받는다.

단, 비디오·게임, TV, 페이쇼 가구, 작은 전기기구는 제외된다.

◆마크·라롱 재무장관이 19일밤 의회에서 새 예산안 상정을 위한 연설을 마치고 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고 있다. 라롱 장관은 이 예산안이 "특별회복" 예산안임을 강조하면서 내년말 쯤에는 전반적인 경제회복이 이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카 합동위원회 설치

원자력개발및 가동위해

(서울20일=연합)이범석 외무장관과 방한중인 캐나다의 장·크레티안 동력장관은 원자력개발과 가동을 위한 합동위원회 설치에 대한 각서에 서명했다고 외무부가 19일 발표했다.

이 각서는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원자력개발에 상호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기로 한 1976년도의 계약이행과 합동위원회가 서울과 오타와에서 번갈아 연례회의를 개최할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크레티안 동력장관은 6일간의 공식방문중 캐나다 제조의 캔두를 설치한 월성원자력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했다.

국제 報道 부문
NYT 프리드만 記者
WP 젠 킨 스記者
퓰리처賞 수상자 결정

(뉴욕=외신) 뉴욕타임스의 토마스·프리드만기자와 워싱턴포스트의 로렌·젠킨스기자가 올해 퓰리처상의 국제보도부문에서 수상했다.

또한 워싱턴포스트의 로레타·토파니기자는 구치소내 강간및 성폭행사건, 뉴욕타임스의 넌·로버트슨기자는 유독개스관계 보도기사로 특별상을 각각 수상했다.

— 〈오늘의 시세〉 —

CN$1.00 = 620.38원
CN$1.00 = US80.82센트
금(런던) = $543.79
은(토론토) = $15.17/oz.

미인후보
1983
음악경연입상

제10호 정이경양
제11호 김영미양

피아노·그림·수영이 특기라고 하는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목사의 2남2녀중 장녀인 Westview 고교 12학년생 정이경양(19세)이 미인후보 제10호로 등록했다.

독서를 즐기고, 음악교수가 장래희망인 정양은 충남 연기군 태생으로 서울서 자랐으며 선화예고 2년때인 81년 이민왔다. 여섯살때부터 피아노에 매달려 중학시절 음악경연에 두번이나 상위입상, 작년8월에는 CNE 컴피티션에서 1등의 영예를 차지하기도.

세계적 피아니스트 루빈슈타인을 가장 존경한다는 정양은 음악의 고장인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가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매력의 포인트를 "웃는 입"이라고 말하는 정양은 로스트·비프를 즐기며, 백합꽃을 사랑한다.

신체조건은 키 166Cm, 몸무게 114파운드에 34-24-35. (추천인은 정종섭씨)

◆정 이 경양

스튜어디스출신

캐나다미스코리아 후보 제11호는 KAL 스튜어디스 출신의 김영미양(24).

서울산으로 정신여고, 중대 국문과 졸업, 82년 이민온 김양은 한국공무원 김용철씨의 2남2녀중 맏딸로 스키 실력은 경력 5년에 베테랑급이다.

탁구와 음악감상을 즐기며, 고국의 맛김치를 좋아하고, 백합꽃을 사랑하는 김양은 예술의 수도 파리를 무척이나 가보고 싶어한다.

스키외에 노래솜씨 또한 뛰어난 김양을 친구들은 입버릇처럼 "겸손한 애"로 평가한다.

키 164cm, 무게 49kg, 34-25-37.(추천 남강)

◆김영미양

토론토 방문 연기

원충연씨 비자받지 못해

새한장로교회 초청으로 토론토에 올 예정이던 전 국가재건회의 공보실장 원충연씨는 캐나다 입국비자를 받지못해 22일부터 인도하려던 전도간증집회(기독교복음전파를 위해 자기의 체험담을 얘기하는 모임)가 무기연기됐다.

새한교회측은 원씨가 애초 주한캐나다대사관측으로부터 비자발급에 문제성이 없다는 구두전갈을 받았기 때문에 출국준비를 했으나 대사관측은 "2~3주간의 검토기간이 필요하다"면서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고 밝혔다.

5.16혁명 당시 주체세력이었던 원씨는 그후 반혁명사건에 연루되어 15년간 옥살이를 했다. 이때 기독교 신앙에 심취, 출옥후 평신도전도자가 되어 복음전파에만 주력해왔다.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블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강찬영
변호사 사무실
☎ 961-2417
410 DUNDAS ST. EAST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536-1692
R.245-3539

YOUNG I. HYUN C.A.
카나다公認會計士
현영일
444-9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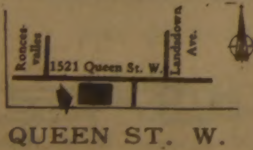
강학수종합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622-5147

란콤화장품 보너스쎄일
로렉스
오메가시계 45% ~50% 할인
귀국선물
은하보석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FIRST AUTO SERVICE
AUTO BODY SHOP
REPAIR
제일오토바디
봄맞이 특별튠업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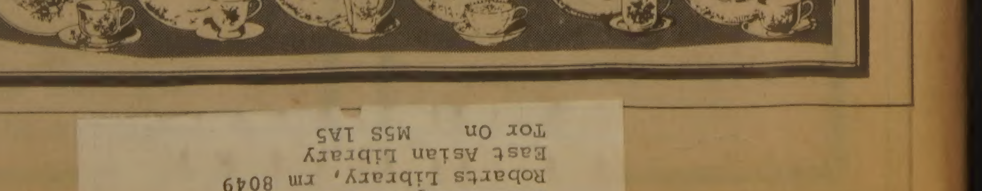
교민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보답코저 다가오는 봄을 맞아 특별기간을 설정해 아래와 같이 염가봉사하오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바랍니다.

※기간 : 1개월간.
일반차량 : 8기통… $49.95
6기통… $42.95
4기통… $36.95
*물론 튠납시 엔진샴푸도 포함.
※오일및 필터 교환 류브리케이숀 $16.95 Regular에 한함.)
*브레이크 JOB $99.95



1521 QUEEN ST. W. B)532-0200, R)537-5830

The Sol
... FINE GIFT STORE ..
세일기간 : 4월15(금)~30일(토)
품목 • ■각종 Noritake Dinner Ware
■Crystal 제품
■China ware
■Silver ware
■각종 대나무 가구및 일반제품
Noritake
1032 ST. CLAIR AVE. W.
(쎄인·클레어×Oakwood 서쪽)
☎656-4315 MRS. 최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자작곡『성·마가수난곡』선보여

박재훈박사 모국방문 지휘

◆박재훈씨

토론토한인합창단 및 토론토한인연합교회 성가대지휘자이며 작곡가이자 목사인 박재훈 박사가 최근 모국을 방문, 자신이 작곡한「성·마가수난곡」을 초연 지휘하고 돌아왔다.

부활절을 기해 서울영락교회가 주최한 자선음악회의 일환으로 4월1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영락교회 800여명합창단과 관현악단을 지휘, 자작곡을 선보여 절찬을 받았다.

서울의 각 일간지는 이를 상세히 보도했다.

성·마가수난곡은 성경 마가복음 14장-15장을 주제로한 예수의 수난과 죽음을 음악으로 표현한 2시간20분짜리의 대작이다.

박박사는 지금까지 동요, 찬송가, 성가곡등 애창곡 50여가지와 오페라「에스터」등을 작곡했으며 앞으로 3.1운동을 주제로한 오페라를 쓰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캐나다에 오기전까지는 LA할리우드 교회지휘자로 있으면서 한·영 찬송편집에 힘썼고 한국에서는 한양대음대교수, 영락교회 지휘자등을 역임했다.

토론토에 와서도 매년 한인합창단의 메시아 공연을 지휘했으며 교회음악향상을 위해 음악강습을 인도하기도 했다.

그는 81년도 한국일보사가 제정한 한인민속상도 수상한 바 있다.

새로운 금연약 개발

민트맛나는 물약『타비날』

몬트리얼 거주의 의사 윌리암·나자르씨(49세)는 최근 금연을 위한 효과적인 마우스·워쉬(Mouth wash)물약을 발명해 냈다고 발표했다.

초록색 민트맛(mint flavored)이 나는 이약은「타비날(Tabinal)」로 명명되었다.

하루에 두번씩 아침식사후와 저녁식사후에 입안을 씻어내면 되는데 현재 시험사용자의 약85%가 효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이 물약을 사용하면 타액이 작용해 담배맛을 없애므로 담배를 피고싶은 마음이 사라지며 반면에 음식맛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나자르씨는 이 마우스·워쉬의 주성분은 미네랄·소금(Mineral Salt)이며 9년간의 연구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히고 자신도 헤비 스모커(Heavy smoker : 대량흡연자)였으나 이를 사용해 끊었으며 친구들도 대단한 효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보건당국도 캐나다 전국적으로 이약을 생산, 사용해도 좋다고 허가했다.

10일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인 100ml용량의 마우스·워쉬는 한병에 $13~$14정도 하는데 한병이면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나자르씨는 장담했다.

나자르씨는 현재 몬트리얼에 개인연구소를 차리고 본격적인 생산과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지니스 수신탑

최영호씨(태권도사범)=다년간 가게경영한 경험을 살려, 이번에는 토론토 심장부로 진출, 364 Yonge St.(×King)에 Lulu Cafe(Tel: 364-3697)를 지난주 개업했다. 샌드위치, 도너츠등 간이식품과 드링크류를 판매한다.

"새벽 6시에 문을 열지만, 저녁에 일찍 끝내고, 토·일요일은 휴무하기 때문에 바라이어티 가게때보다 훨씬 편하다'고.

교포가게 강도

현금뺏겨

웨스톤 밀크스토어(Weston Milk Store)를 경영하는 조세정(Sye-Jeong Jo, 32세)씨는 자신의 가게에 강도가 들어와 금품을 털어 달아났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메트로경찰의 사건보고서에 의하면 18일 오후 7시5분경 2명의 강도가 들어와 그중 1명이 실제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총이 있다고 말하면서 현금상자를 뒤져 돈을 꺼낸후 함께 웨스톤·로드에서 북쪽방향으로 달아났다는 것이다.

제5계절

영원한 미소

김 종 환

(토론토 Knox 신학대 석사과정)

◆김종환씨

자주 느끼는 일이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미소(微笑, Smile)에 어설프고 인색한것 같다.

관공서나 은행, 레스토랑등 어디를 가나 미소띤 얼굴을 찾기가 쉽지 않다. 비록 한두번 어렵게 미소짓는 사람을 만났다해도 그 미소에는 어색함과 억지인상이 있어 상대방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든다. 조금 성난듯 하고 심각한 얼굴이 더 자연스러울 정도다.

미소는 여느 운동처럼 계속해야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진다. 실제로 음대 성악과 같은데서는 미소와같은 여러가지 얼굴표정법을 배운다. 이곳 북미인들은 어려서부터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미소하는 법을 체득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선 도대체 미소에 대해 관심이 없다. 오히려 미소짓고 다니면 "정신나간 놈", "실없는 놈", "쓸개빠진 놈"등으로 취급받기가 일쑤다. 표정없는 근엄한 얼굴이 한국사회에선 이상적 얼굴 표정이다.

한국 역대 대통령들의 사진을 보라.

차거운 위엄은 있으나 온화한 미소는 없다. 기쁜 찬송을 부르는 교인들의 얼굴도 쥐똥씹은 표정이다. 미스코리아 후보들의 얼굴에서도 자연스러운 미소는 찾아보기 힘든다. 대부분 운동부족, 영양실조에 걸린 인스탄트(Instant) 미소를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어느 통계에 의하면 남성이 어느 여성에게 끌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그녀의 미소때문이라고 한다. 얼굴이 잘 생기고 못생긴 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만큼 여성의 미소에는 모나리자의 미소처럼 독특함과 신비감이 서려있다. 그리고 각각의 개성이 있다.

「마릴린·몬로」의 천치같으면서도 요염한 미소,「잉그리드·버그만」의 지성적인 미소,「그레이스·켈리」의 은은한 미소,「제인·폰다」의 도전적인 미소가 그 예다.

남성은 여성의 미소에 매우 민감하다.

여성의 미소속에서 남성은 사랑의 묘약도 발견하지만, 저주의 화살도 찾아낸다. 여성은 미소에 그녀의 마음을 담아보낸다. 먼지는 미소는 같지만, 대상에 따라 미소의 구성성분이 달라진다. 진정 여성의 미소는 신비한 마음의 표현이다.

미소는 꼭 잇발을 들어내고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입을 다물고 있어도 얼굴 전체에서 은은히 퍼지는 미소가 있다.

인생을 달관한 사람들의 미소가 그 것이다. 이들의 미소는 철저하게 고심하고, 철저하게 절망한 후에 오는 미소다.

사람들은 어렴풋한 희망이나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자신과 그 주의의 어둠을 기만하려 든다. 그러나 인생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미지근한 희망도 아니며, 가면을 쓴 기대도 아니다. 춥고 어두우며 그리고 지루한 그 인간의 생을 자기 기만없이 송두리째 소유하려드는 것이다.

즉 자신과 인간자체에 대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은 채, 아무것도 희망하지 않은 채 침묵하는 밤, 영원한 그 어둠속으로 몰입해 가는 비극의 작업을 거친후 탄생한 희망과 기대다.

절망의 심연을 맛본후 이런 진실된 희망과 기대를 가진 사람들의 얼굴에서 우리는 영원한 미소를 읽을 수 있다. 나도 이런 미소를 갖고 싶다.

金聖鍾作

第5의 사나이

恐怖의 추리소설

<216>

헤로인 ⑪

모세가 무슨 이유로, 누구의 손에 의해 어떻게 죽었는지 자세히 설명되는 동안 그는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있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의 얼굴에는 이미 고통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모세는 말이 없다는것은 무슨 뜻이지?』

『그건 모세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모세가 죽은 뒤 나는 그어머니를 찾아갔어요. 모세의 죽음을 말해주려고 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종이에다 이렇게 적어본 거예요.』

『왜 전화번호를 적었지?』

『그래서 나를 쉽게찾아냈군요.』

『그게 당신의 실수였어. 그 때문에 나는 의외의 것을 알게됐지만…』

『그때 전화를 설치한지 얼마안됐어요. 하룻가 이틀인가 됐을때였어요. 나는 숫자 외우는건 아주 서툴러요. 그래서 메모지에 적어놓았던 거예요. 아무 다른 뜻은 없어요.』

『모세의 어머니는 당신이 혼자 왔었다는 말은 하지 않던데?』

『그할머니는 건망증이 심해요. 그래서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할거예요.』

『그 남자는 누구지? 아파트에서 칼에 찔렸던 그 남자… 당신과 동거하던 그 남자…?』

『모세를 죽인 공범이에요.』

그녀는 박두봉이 자기를 찾아온 동기에서부터 이야기를 해나갔다.

죽은듯이 누워있던 일본인이 탁자를…

朴男 그림

『그는 죽었나?』

『아마 죽었을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모세를 죽이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여동생인 박문자가 죽였느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하지 않아요. 자기 입으로 동생이 범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박문자는 어디 있지?』

『경찰에 체포되었어요.』

『조직에서는 그 여자를 당신으로 알고있어. 수지라는 여자가 경찰에 체포된것 같다고 그랬어.』

수지는 힘없이 웃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때 죽은듯이 눈을 감고있던 일본인이 탁자를 걷어찼다.

제5의 사나이는 탁자에 부딪쳐 뒤로 밀리면서 방아쇠를 당겼다.

슉! 슉!

일본인은 벌떡 일어섰다가 침대위로 나가떨어졌다.

관자놀이와 가슴에서 검붉은 피가 솟어져나왔다.

여자가 비명을 질렀다.

그는 여자를 바라보다가 다시 방아쇠를 당겼다.

총알이 여자의 가냘픈 목을 관통했다.

여자는 침대 밑으로 굴러떨어졌다.

문을 두드리는 노크소리가 났다.

"금년내 암환자 6,000명숨진다"

직업병전문가 충격적보고서 발표

토론토 세인트·마이클즈(St. Michael's)병원의 직업병담당책임자인 제임스·네더코트(Nethercott)박사는 18일 금년내에 온타리오내에서는 직업병과 연관, 약6,000여명의 암환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는 이 숫자가 노동자보상위원회의 보고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말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면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더코트박사는 그의 연구를 통해 직업과 관계된 병으로 매년 20,000명이 사망하고 10만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약33,000명이 영구적인 신체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연구보고중에는 전력회사에서 일한 24명의 여성들이 일률적으로 부인병과 유방암에 걸렸던 사실도 지적했다.

퀘벡주의 한 의사보고에 의하면 광산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평상노동자보다 5~10배 이상의 폐암유발율이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코메탈(Inco·Metal)회사의 경우 높은 후두암과 폐암율을 기록한 예를 들었다.

어떤 노무자는 술, 담배를 전혀 입에 대지 않지만 이 공장에서 일한 후 기관지계통의 고질병을 앓고 각혈도 했다고 말했다.

각종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노무자들은 보다 큰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1969년부터 77년까지의 경우 매년 직업과 관계된 질병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증가일로에 있다.

네더코트박사는 앞으로 발병한 환자나 각종 장애자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계속적인 치유와 용기를 북돋우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1981년 문을 연 센트·마이클치료소는 특별히 직업병환자와 장애자들을 위해 개방하고 있다.

이 병원은 현재 온타리오 노동자연맹의 자문 및 해밀턴 직업건강및 안전관계 자문, 노동자보상위원회의 자문등으로 일하고 있다.

"교육의 질 저하 우려된다"

『온』주 각급학교 교사 주장

온타리오주의 각급학교 교사들은 성명을 통해 주정부가 현재 예산절감에 급급한 나머지 현행 교육예산은 인프레율에도 훨씬 하회하여 각급학교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를 재고하지 않을 경우 교육의 장래에 큰 손실의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15,000명이 가입된 온타리오 공립학교 교사연맹의 데빗·레녹스회장은 "주정부는 교육의 질 저하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온타리오의 주역이 될 다음세대를 위해 지금 과감히 투자하지 않으면 앞으로 개선은 늦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온타리오 중등교육교사연맹의 집행위원인 로드·알버트씨 역시 "71년 당시보다는 많은 예산상의 증가가 있은 것은 사실이나 76년이래 인프레이션율에 따르지 못해 늘 허덕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2개 교사연맹은 주정부가 부족한 예산에 따른 현행교육의 부작용과 실태를 파악해 줄것을 요청했다.

한편 온타리오주 신민당(NDP)은 교사연맹의 제안에 따라 주내 10개 도시에 교육공청회를 열것을 촉구했다.

특별 프로그램 마련

학생 직장위해

로이드·액쉬디 고용장관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연방정부는 중고대학생들의 여름방학 일자리를 위해 1억7천만달러의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5천만달러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국적으로 약40만명의 학생들이 일감을 얻게될 것이라고 액쉬디장관은 말했다.

964·6834(B)
226·0375(R)
상업건물및 주택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General Contractor
Daewha Developments Limited
대화개발㈜
643 Yonge St (3rd fl) Toronto Ont M4Y 1Z9

어린이위한 특별행사

블랙크릭·파이오니어·빌리지

블랙크릭·파이오니어·빌리지(Black Creek Pioneer Village)에서는 오는 4월30일(토)과 5월1일(일) 양일간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행사를 갖는다.

「Past Times, Play Times」라는 이 행사는 19세기 캐나다 어린이들이 즐겼던 각종 놀이를 재연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6시까지 실시되는 이 행사에는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시에는 자신들이 만든 연(Kite)을 가지고 오면 된다.

한편 이날 온타리오 역사협회에서는 누가 연을 만들었고 어떻게 전래되었으며, 어떻게 날리는가의 교육과 시범이 있을 예정.

또한 이날에 선보이는 옛날 놀이로는 첵커(Checker), 후프(Hoops), 공놀이, 말뚝인형만들기(Peg doll), 회전요지경(Thaumatrope), 활동요지경(Zoetrope)등이 있다.

블랙·크릭은 토론토 북서쪽 Jane St.와 Steele Ave.의 교차지점에 있다.

TTC는 #35B Jane St.버스나 #60 Steeles West버스를 타면 된다.

특수피정 개최

토론토 한인천주교회 청년회

토론토한인천주교회(본당신부: 최규식) 청년회에서 주최하는 특수피정이 오는 29일부터 5월1일까지 뉴-마켓에 소재한 샤론 피정의 집에서 열린다.

이번 피정의 주요강론은 다음과 같다.

◉"탕자와 자기자신을 알자": 최규식 신부

◉"신앙인의 사상": 최영호 청년지도부장

◉"한국천주교회의 역사와 순교사": 이석현 사목위원회총회장

◉"Christian Vocation, Marriage, Other Commitment": Father Marcoux

◉"젊은이와 공동체 안에서의 활동": 허영식 전사목위원회장

◉"은총생활", "주님의 사랑과 구원": 주수녀님

◉"신심": 김문고 전사목위원장

그외 패널 디스커션, 운동회, 장기자랑등이다.

이번 피정의 회비는 $40이다.

알려드리는 말씀

예수교 장로회미주한인노회
산하 각교회친선배구대회개최

…경기내용 9인조(성인)
6인조

일자 : 1983년4월30일 오전 8:30
장소 : OVERLEA HIGH SCHOOL
주최 : 미주한인 예수교장로회
카나다 노회
주관 : 빌라델비아 장로교회
후원 : 배 구 협 회
연락처 : 제직회 체육부장 이준규집사
☎ 284-3541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카나다
노회 노회장 안병한 목사
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당회장
김경진 목사

아까시아 식당

AKASIA HOUSE (구·KYO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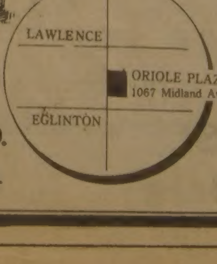
금번 15년의 경력을 가진 일류요리사 김정수씨가 저희식당에서 교민여러분을 모시게 되었읍니다.

◆일식전문
○생선초밥 ○돈·까스
○모밀국수 전문

◆한식
○비빔밥 ○불고기 ○갈비
○된장찌게 ○민어찌게

✣아늑한 분위기에서 달콤한 경음악을 가족들, 벗들과 함께 즐기시고 장안의 최고의 맛을 음미하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요.

□영업시간 : 월~금 낮12시~밤12시까지
토 낮 5시~밤12시까지
일 낮 5시~밤12시까지



주소 : 1067 MIDLAND A SCARBORO.
전화 : 755-3010
팍(이)순자

무기연기

원충연씨 인도
전도간증대회

5·16혁명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공보실장을 지낸 원충연집사의 전도간증대회는 원집사의 캐나다 입국비자 관계로 무기연기 됐읍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새한장로교회
105 Wilson Avenue, Toronto, Ontario M5M 2Z9
(416) 482-4577 (사무실) (416) 665-3132 (사택)

미녀 11명등록

미인대회 토요일(24일)로 박두

1983 MISS KOREA

오는 토요일(23일)로 박두한 제8회 캐나다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20일 현재 모두 11명의 미인후보가 등록했다. 후보등록 마감일인 20일을 하루 앞두고 출전의사를 밝힌 후보는 정미경양과 김영미양.

일부 후보들은 한복이 없어서 고민이고 다른 후보들은 야회복(이브닝·드레스)이 없다고 주최측에 S.O.S.

본 토론토한국일보사를 대신해서 대회운영을 맡은 집행위원회(위원장 윤방현)는 맞는 사이즈의 한복과 야회복을 구해 주느라고 동분서주했다.

후보들은 21일 하오2시 번호표 추첨후 패션모델 전인숙씨와 매년 미인대회 때마다 미인들을 연습시킨 이광민씨의 지도로 걸음걸이등 연습을 시작한다. 이 연습에는 엘리너·휠처 모델학교의 제니퍼·존스 선생도 합세한다. 이 학교는 토요일 하오 화장전문가들을 대회장인 토론토·힐튼 하버캐슬호텔 콘벤션센타로 보내 미녀들을 화장시킨다.

미녀 연습때부터 심사위원들이 참관한다. 22일(금)에는 한인사진협회(회장 전경수) 임원진이 연습중인 미녀들을 사진 촬영하며 포토제닉상 수상자(사진을 가장 잘 받는 미녀)를 결정한다.

이 자리에는 이날 아침 뉴욕서 오는 사회자 지미·킴도 참석한다.

이날저녁 후보들과 심사위원등 관계자들은 이상훈 토론토총영사관저에 초대된다.

후보들은 22일 밤 하버·캐슬호텔서 1박하면서 자기들끼리 사귄다. 훗날 추억으로 남을 이 같은 과정중 후보들은 우정상 후보자를 선정, 대회때 시상한다.

후보들이 입을 원피스 수영복은 일괄 주최측이 제공한다.

한편 프로듀서 이장성, 진행 임중남, 무대감독 장기철씨등을 중심한 스탭진들은 프로그램을 확정한후 무대제작에 돌입했다.

"세계 어느 미인대회에 내놔도 손색없는" 무대셋트가 등장될 것이 예상된다.

무대와 후보들에게 그때그때 맞는 라이트를 주기 위해 완벽한 조명장치와 기술자를 고용, 이때문에 호텔 측에 지불하는 조명관계 비용만도 무려 1,200달러나 된다.

미인대회에서 「진」으로 뽑힌 아가씨에게는 서울왕복항공표, 상금 $1,500, 그밖에도 두둑한 부상이 안겨지며, 모국대회 진출, 토론토 캐라반미녀대회 출전의 자격이 주어진다.

만약 모국 본선대회에서 6위 이내로 뽑히면 미스·유니버스, 미스·인터내셔널, 영·인터내셔널, 미스·월드, 미스·틴에이저·인터내셔널, 미스·아시아대회에 출전, 세계미녀들과 겨룰 기회가 주어진다.

캐나다대회에 나올 미녀후보 11명을 통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나이는 최고 24세부터 최하 17세로 평균 20세, 직업은 6명이 학생, 5명은 직장인, 거주지는 10명이 메트로·토론토이고, 1명만 에드몬톤 출신이다.

특기는 음악·스포츠·무용등 다양하고, 취미의 대부분은 음악애호.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는 프랑스가 3명, 독일 2명, 이집트·스위스·스웨덴·오스트리아가 각 1명이다.

키는 최장신 170cm로부터 최단신은 155센티.

정상미녀의 꿈에 부풀어……

82년도 제7회 미인대회에서 심사발표를 기다리는 미녀들.

제8회(83년) 캐나다미스코리아 후보명세

접수	이름	나이	직업	사는곳	특기	취미	장래희망	매력포인트	키	무게	가고싶은 곳	가슴	허리	히프	출생지
1	박선희	17	고교11년생	스카보로	독서		패션디자이너	키	166	110Lb		35	24	34	전남
2	최경선	21	대학2년생	토론토		수예·음악감상	모범주부		163	52Kg	프랑스				인천
3	조경희	19	고교졸	토론토	체조	피아노연주	음악가	피부	166	59Kg	독일	34	25	36	서울
4	유경희	18	고교12년생	피커링	무용	음악·영화감상	무용가·모델	눈	167	52Kg	이집트	35	24	36	전주
5	이은경	21	고교졸	오크빌	배구	뜨게질	계리사	눈매	165	51Kg	프랑스	34	24	35	부천시
6	오미숙	23	대졸	토론토		음악감상	현모양처		165	48Kg	스위스		23		서울
7	장덕향	23	대학재학	에드몬톤	노래				53 inches						
8	강영주	19	사무원	토론토	미술	요리	패션디자이너	눈망울	160	46Kg		33	24	34	
9	이석미	19	고13년졸	뉴·마켓	스케이팅	시짓기	치과위생사	손	170	53Kg	스웨덴	34	25	35	서울
10	정이경	19	고12년재학	다운스뷰	피아노·그림	독서	음악교수	웃는입	166	114Lb	독일·오스트리아	34	24	35	충남
11	김영미	24	대학졸업	토론토	스키	탁구·음악감상	현모양처		164	49Kg	파리	34	25	37	서울

〈연재소설〉

혼돈

글·이태준 그림·최미경

제1편 출국

그녀가 나를 끌고 간 곳은 어느 여관이었다. 나는 우선 한숨을 놓고 그녀가 이끄는대로 여관의 이층으로 따라 올라갔다. 벌써 손님들은 거의 다 나가고, 방들은 문이 열린채로 비어 있었다.

그녀는 여관이 마치 자기집인 마냥 비어있는 방들을 가리키며,

"아가씨, 아무 방에나 들어가서 잠깐 기다려요'

무엇을 훔쳐 도망나온 여자처럼 다급하게 오던 때와는 판이하게 여유스러운 웃음을 머금고 말했다.

"여기서 기다리겠어요'

처음 와본 여관에서 혼자 방안에 들어가 있기는 꺼림찍했다.

"거북스러워서 그래요? 그래도 주인 아저씨를 만나야 할 테니까 잠깐 들어가 있어요"

그녀는 내가 서있는 바로 앞방으로 나를 밀어넣으며 어떠냐는 표정을 지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할 수없이 그녀가 미는대로 방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내가 생각해온 여관방과는 달리 방안은 말끔히 청소되어 있어서 산뜻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그녀가 아랫층으로 내려가는 소리를 들으며 방문을 닫고 편한 자세로 벽에 기대어 앉았다. 빼꼼히 열린 커텐사이로 강열한 여름의 아침 태양빛이 새어들어와 방바닥에 삼각형을 형성하고, 방바닥에서 창문에 이르는 빛의 삼각주안에는 무수한 먼지들이 향광성 세균들처럼 날아다니고 있었다.

(무슨 직업이 나에게 주어질까? 이 여관의 식모가 되라는 걸까? 아니면 청소부가 되라는 걸까?)

빛의 삼각주 안을 끈임없이 이동하는 먼지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면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직업을 상상해 보던 나는 나른한 졸음을 느꼈다.

얼마나 졸았을까!

"아유, 딱도 해라. 아가씨가 피곤한 모양이구먼……"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번쩍 눈을 떴다. 아주머니는 주인아저씨인듯한 남자와 방문앞에 서서 가엽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분이 주인아저씬데, 아가씨에게 좋은 직장을 주실 거유. 나는 인제 가니께 말 잘듣고 돈도 많이 벌어유"

그리고는 그녀는 비실비실 웃으며 사라져갔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그럴 여유도 주지 않고 가버렸다.

그녀가 간 뒤 문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던 주인아저씨가 방으로 들어왔다.

이미 인사할 시기를 놓쳐버린 나는 엉거주춤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예쁜 애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 목소리가 무거웠다.

"김애자예요"

대답소리가 떨렸다.

"나이는?"

그는 들어선 그대로 계속 질문만 던졌다.

"열여덟살이야요"

모든것을 체념하고 알몸이 된 그녀는…

"좋은 나이로구나. 너를 창녀로 팔아 넘기기는 아깝다. 옷을 벗어 보아라"

가슴에서 심장이 내려앉는 충격을 느꼈다. 나는 그를 올려다 보았다. 그의 눈빛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창녀라니요? 나는 아주머니를 따라 직장을 구하러 왔어요"

내 목소리는 문풍지처럼 떨고 있었다.

"너는 참 순진하구나. 말을 잘 들어야 좋은 직장을 줄 수 있다. 옷을 벗어라 신체검사를 해보자"

"아픈데도 없고, 병신도 아니예요. 어제까지 직장에 다니다 왔어요"

"이밤에는 너와 나 단둘 뿐이다. 잔말말고 옷을 벗어라"

목소리에 위협과 신경질이 섞여졌다. 어떻게 할까. 못한다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을 할까? 그러나 잘못했다간 더 큰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나를 제어시켰다.

"너는 말을 잘 듣지 않는구나. 그럼 너는 창녀로 가거라"

냉정한 선고였다. 더 이상 버텨서는 안될 것 같았다.

"정말입니까, 아저씨? 옷을 벗으면 좋은 직장을 주시겠읍니까?"

나는 애원하고 싶었다.

"신체검사를 해보아야 한다. 마지막 기회다. 어떻게 하겠니? 옷을 벗겠니? 아니면 창녀로 가겠니?"

나는 바들바들 떨며 옷을 벗기 시작했다. 여름철이라 별로 벗을 것도 없었다. 브라우스와 치마를 벗어버리니 브라자와 팬티만 남았다. 수치심에 얼굴이 상기되고 확끈거렸다.

"다 벗어라. 브라자도 벗고, 팬티도 벗어라"

나는 돌아서서 팬티도 브라자도 벗어버렸다. 몸이 바들바들 떨려도 이상하게 마음은 착 가라앉았다.

"이쁜 몸이다. 춤을 추려면 피부가 곱고 흉터가 없어야 한다. 허리를 펴고 앞으로 돌아서 봐라"

모든 것을 체념해버린 나는 뜸들이지 않고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나를 쳐다봐라"

나는 대담하게 그를 올려다 보았다. 불그레 탐욕으로 이글거리는 그의 눈빛이 내 알몸의 모든곳을 훑어내리고 있었다.

"너는 춤을 출 수 있다. 춤을 추게 해주마. 휘황찬란한 조명아래서 남성들의 비명을 들으며, 춤을 추게 해주마. 그 댓가로 너는 오늘밤을 나와 함께 보내야 한다"

그는 걸었던 문을 풀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갑자기 실성한 여자가 제정신이 돌아온 것처럼 옷을 주워입었다. 우선 치마를 먼저 입은후 브라자를 걸치고 팬티를 입은 다음 블라우스를 입었다.

(계 속)

한국과 캐나다 관계의 교량이 되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생활영어

민병철 담당 (156)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GOD BLESS YOU!

교양있는 미국인이라면 sneeze(재채기)를 하고 나면 반드시 옆사람에게 Excuse me.라고 하는데 이때 상대방은 God bless you! 또는 Gesundheit!(거순타잇)라고 하기 마련이다. gesundheit는 독일어로서 God bless you!와 마찬가지로 둘 다「좋은 건강을 가지세요」다시 말해서「몸조심 하세요」라는 뜻이 된다.

이와 같은 표현은 실제로 미국인들과 생활을 해보지 않고서는 얻기 어려운 체험 영어인데 어떤 분이 영어로 잠꼬대를 하는데 20년 걸리더라는 농담도 있다.

여하튼 미국인들은 etiquette(에티컷:예의)를 지키는데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쓴다. 자리를 뜰 때 Excuse me. 하거나 잘못해서 남의 발을 밟는다든지 몸이 스치기만 해도 Excuse me. 또는 Pardon me.를 사용한다.

재채기 하는 사람에게 God bless you! 또는 그냥 Bless you!라고 하면「몸조심 하세요」라는 뜻인데,「신의 은총이 있기를」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God bless you!를 사용한다. 구걸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God bless you! 라고 할 것이고 기독교인들 끼리 서신에 God bless you! 했다면 역시「신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이러한 뜻이다.

A: (a sneeze) Excuse me.
B: God bless you!
A: Thank you.
B: It sounds like you're coming down with a cold.
A: I'm afraid so.
B: You'd better take care. There're a lot of colds going around.

A:(재채기를 하고 난 후) 죄송합니다.
B:몸조심 하세요.
A:감사합니다.
B:목소리가 감기에 걸린 것 같은데요.
A:그런 것 같습니다.
B:건강에 유의하셔야 할 겁니다. 감기가 많이 유행하니까요.

※come down with:병이 나다.
Ex. He came down with the flu.그는 독감에 걸렸다.
※I'm afraid so: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go around:(병이) 돌아다니다.
〈발음〉Gesundheit:독일어로서「거쑨타이트」라고 발음.

이연재물의 필자가쓴「생활영어」1, 2, 3, 4권을 구입하려면 B.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111 60053 U.S.A. 로 수표나 모니오더를 보내면됩니다. 가격은 권당 12달러(판매세및 우송료포함) 전화:(312) 966-4050

남강에서 만납시다

유명식당 쇼간에서 일하던 일본인 일류전문요리사 요꼬·웨다씨
한국인 일류 일식요리사(덴뿌라·스시 전문) 정해용씨
※고급 음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
※각종 모임 환영.
920 Yonge St.
☎: 923-3060

＊ 점심스페샬 낮12시～1시 편리한 파킹시설 ＊

한인단체 대표자 소집

온타리오 정부는 토론토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캐나다사회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캐나다에 이민와서 생활하시는데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며, 온타리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합니다. 교육·문화·직업·사업·이민·인권·노년·부녀 각분야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관할 담당장관에게 전달되어 온타리오 정부는 이를 정책수립에 참고로 할 것입니다.

이와같은 의견발표의 기회를 마련하는 모임을 갖기 위해 첫단계로 준비위원회를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고견을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 : 각종 한인단체(교회·학교 포함) 대표·회장 또는 그의 대리자
■일 시 : 1983년 4월28일(목) 오후 7 : 00
■장 소 : Kawartha Room, Macdonald Block, Queens Park, Toronto(Wellesley & Bay)
■연락처 : Ontario Human Right Commission, Mr. Khim Tan 965-3423
또는 구상회·김창렬·김명규·유재신·장순채·차선겸

Dr. B. Ubale,
Commissioner for Race Relations,
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실협뉴스
K.B.A.NEWS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627A BLOOR ST W TORONTO ONT M6G1K8
533-7923-4
COMPLAINT CENTRE (HOTLINE) 533-8344

외설잡지 통제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고발대상 협회원 좌담회—

일시 4월15일
장소 협회사무실
참석자
사회 : 차선겸회장
협회측 : 서준경이사장, 조기연부회장, 이춘수부이사장, 김풍수총무, 정상우재무, 강공선사무장
회원측 : 손성진, 김철수, 김영환, 장재식, 장인수, 박상남, 천성열, 최재덕, 박영빈

◆고발된 회원 대표들과 협회 간부진.

주7일 100시간 이상의 육체적인 피곤함 이외에도 정신적인 압박감으로 인하여 많은 동료회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작년 7월 "판매를 목적으로한 외설잡지의 소지"라는 죄목으로 에비뉴(Avenue)로드 소재의 N회원이 고발당한 것을 필두로 20건 이상의 고발이 지난주 현재 협회사무실에 접수되었다.

아직도 메트로경찰은 성인잡지 "Display By-Law"와는 관계없이 "판매를 목적으로한 외설잡지의 소지"라는 죄목으로 계속적인 고발(Charge)을 하고있어 선량한 코너스토어 업주들은 큰 불안에 떨고 있다.

더우기 이 법은 형사법에 의하여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는 심각한 유죄로 간주될 수도 있으며, 케이스에 따라서는 "캐나다시민권"획득을 위한 적부심사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단순한 경찰과의 관계이전에 교포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우리 협회원들에게 심각한 문제점을 안겨주고 있다.

협회의 간부진들은 지난 8월 이후 동법의 제의자 이글톤 토론토시장을 비롯하여 시경찰의 해당부서 간부들과 수차례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시도하였으며, 협회측은 "우리들은 결코 미성년자의 교육에 장애를 주는 외설잡지의 판매로 치부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정확하고 직선적인 「Guide Line」을 우리협회에 제공한다면 조건없이 그것에 따르겠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1천 이상의 선량하고 피곤한 코너스토어 업주들의 해당잡지소지를 통제하려고 수많은 경찰이 고생하기 이전에 불과 10여개 회사미만인 공급업자들을 강력하게 통제함으로써 정부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바란다"고 주장하였었다.

협회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경찰당국에 외설잡지에 대한 한계를 규정하여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청하였었다.

한편 전반적인 캐나다사회 일부교포들에게도 우리 협회원들이 돈(make money)만을 위하여 자녀교육에 저해되는 외설잡지를 고의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있어 더욱 큰 피곤함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지난 4월15일 협회사무실에서는 동사건에 관련되어 고발당한 9명의 대표자들과 협회의 간부진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현황을 설명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키 위하여 장시간에 걸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회원여러분의 참고를 위해 그 대표적인 케이스 일부를 소개한다.

(차회장)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진작 이런 자리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의논하고 그 대책방안을 함께 연구하여야 했을 것을 아시다시피 「실협의 밤」행사준비관계로 늦어진점 사과드립니다.

먼저 각자의 현상태를 설명해 주시고 공통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해결방안과 대책을 연구합시다.

(김철수) 3월초 사복경찰 2명과 정복경찰1명이 상점에 와서 상점문을 닫으라고 요구한 후 1시간에 걸쳐 수색을 한후 3백여권의 잡지를 압수하였으며 작년8월 이후의 Invoice전부를 요구하였다.

다음날 일부잡지는 돌려받고 경찰서에 호출되어 지문채취(Finger print)와 더불어 사진촬영을 당한후 돌아왔다. 재판은 6월29일이다. 쓸쓸하고 우울한 생각에 이민이 이런것인가 하고 서글퍼진다.

(차회장) 그당시 경찰측에 수색영장을 요구하셨는지?

(김철수) 당황하여 요구해 보지도 못하고 상점문까지 닫아주었다.

(김영환) 저역시 3월초에 사복경찰1명이 와서 5권의 잡지를 빼들고 이책은 팔지 말라고 하였다.

다음날 4시경 어저께 왔던 경찰관과 더불어 3명의 경찰이 와서 200여권의 책을 압수하여 갔다. 압수후 상점주인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느냐기에 wife와 더불어 Partnership이라고 하였더니 두사람 동시에 고발이 되었으며, 재판이 있을때나 경찰서에 호출되어 갈때 상점의 Helper문제며, 애기화줄 사람으로 골치를 썩히려니 신경질이 머리끝까지 난다.

또다시 고발당하는 것이 두려워 성인잡지 전부를 진열하지 않고 있다. 그에 따라 매상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으니 영구적으로 취급 않을 수도 없고, 협회측의 활동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다.

(차회장) 역시 수색영장의 제시를 요구하지 않으셨는지?

(김영환) 그럴 생각이 있었지만 이것저것 다 없는 이민생활에 괜한 말썽으로 문제가 더 생길까 그만 두었다.

(서이사장) 전번 경찰측과의 미팅에서 경찰측은 상점주가 수색영장을 요구하면 제시할 의무가 있으며, 수색영장이 없을시에 창고및 지하실등의 수색을 거절하면 경찰이 강제로 수색할 권한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차회장) 특히 상점문을 닫으라는 요구는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점은 즉시 경찰에 질의하겠다.

(장재식) 제 경우는 헌책을 사서 그것을 다시 포장하여 팔고 있으며 그것이 매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섯명의 사복경찰관이 들어와 경찰증명을 보인 후 가게문을 닫게 하였으며, 지하실등 상점 구석구석을 수색하였으며, Wagon차 하나가득 싣고 갔다.

헌 잡지 뿐만아니라 포장하는 기계며, 포장지까지도 압수하여 갔다. 심지어는 담배를 어데서 구입했느냐고 까지 질문하였다. 다음날 지문채취, 사진촬영을 위해 경찰서로 오라기에 다음 주면 어떠냐고 하였더니 체포(arrest)하겠다고 하였음.

재판소에서 경찰관이 유죄(guilty)를 시인하면 1년정도의 집행유예로 해결될 것이라 권유하기에, 그대로 유죄(guilty)를 선언하였다. 그결과 100불의 유죄벌금 판결이 나고 말았다. 며칠을 생각하다가 하도 분통이 터져 변호사를 사서 5백불을 예치한후 상소를 하였다. 3월17일 상소심에서 너자신이 유죄임을 이미 시인하였으므로 기각되었다고 한다. 결국 8백불이상의 헛돈만 쓰고 무위로 돌아갔다.

(최재덕) 사복경찰이 아무말없이 상점에 들어와 비닐포장된 한권의 잡지를 찢어 보았다. 항의를 하였더니, 보고 돌려주겠다함. 다음날 다시와서 고발되었으니 서명하라기에 정확한 한계규정(Guide Line)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입장에 어떻게 적법여부를 따질 수 있느냐 하였더니 재판정에서 보자고 하였다.

(서이사장) 고발장에 서명을 요구할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차회장) 정확한 것은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 보아야 알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특히 형사적인 문제에는 서명전 자신의 변호사조언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질의하여 확인해 보겠다.

(천성열) 제 경우는 이상 여러분들의 경우와 비교할때 비교적 다행으로 해당경찰의 충고로써 끝나고 고발당하지는 않았다.

(박상남) 제 경우는 여러분들과 비슷한것 같다.

(손성진) 나도 마찬가지다.

(장인수) 제 경우는 불과 2권밖에 압수당하지 않았으므로 경미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지만, 내 생각으로는 우리들에게도 문제는 있다고 본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 대부분의 케이스, 경찰측의 수색이 오기전에 인근시민의 불평이 있어서 경찰의 액션이 있는것으로 안다.

물론 장시간에 피곤하겠지만 우지자신들이 조금만 잡지진열에 신경을 쓰면 까다로운 손님들의 불평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우리의 자녀교육을 위해서도 그래야 하겠다.

(차회장)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처해진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피해당사자로써 협회가 이러한 문제를 두고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요? 저희들 협회간부들은 그간 나름대로 여러가지의 시도를 취해 보았읍니다만, 피해당사자인 여러분들이 더욱 절실히 생각하셨을테니, 그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죠.

(천성열)우리 소매업자는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정부측과 접촉하여 공급업자의 보급을 통제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

(박상남) 정확한 한계규정(Guide Line)을 경찰측에 요구하여 팔 수 있는 책과 없는 책의 용이한 구별을 요구해야 한다.

(장인수) 나는 외설잡지의 배달을 거절하는 문제도 고려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다.

(손성진) 공급업자에게 모든 성인잡지의 비닐포장을 요구하면 어떨지?

(차회장) 그 문제는 공급업자의 원가요인에 크게 작용하므로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이미 베커(Becker's)가 일시동안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다.

(천성열) 담담하고 억울하여 우리가 이처럼 협회측에 많은 것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협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도 한계는 있다고 본다. 비록 우리의 실협이 대조직체로써 급성장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것이다.

(장인수) 다시 강조하지만 성인잡지 전체를 판매거부해볼 용의는 없는지? 협회의 간부들에게 묻고 싶다.

(차회장) 서이사장님이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시죠.

(서이사장) 첫째 피해회원들이 전적으로 메트로뉴스, 인터시티등 잡지회사의 변호사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어리석다. 우선 강한 지정변호사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자. 5피트이상 Blinder설치 by-law는 철저히 지키자. 군소업자와의 거래는 취소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

메트로 뉴스, 인터시티등 주요공급업자에게 강하게 경고함으로써 그들이 우리들의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써 임해줄것을 요구하자.

(차회장)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협회의 일선책임자로써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속시원히 해결해 드리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지금까지의 경찰측 태도과 경위로 보아서 다분히 정치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되는군요. 우리들의 주관을 분명히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할것 같습니다. 우선 유능하고 강력한 전문변호사를 선정하여 여러분의 고충을 전담케 할것이며 그 비용을 공급업자들이 비용부담할 수 있도록 협상해 보겠읍니다.

다음주 경찰국장등 경찰간부들과 이 문제에 대하여 미팅이 약속되어 있으니 그 자리에서 정확한 Guide Line의 제시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그와 동시에 공급업자선에서의 통제가 선행될것을 주장하겠읍니다.

장인수회원이 주장하신 기한부 불매운동으로 공급업자들의 주위를 환기시키고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고충을 그들이 전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의는 대단히 좋읍니다.

그러나 전체 회원여러분들의 호응여부도 고려해 보아야 되므로 좀 더 신중히 연구한 후에 결정하겠읍니다.

그러나 진열에 관한 문제만은 서이사장의 말씀과 같이 철저히 지키는 것이 우리들에게 좋을 것 같읍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의 논의끝에 협회의 차선겸회장은,

(1)경찰의 고발시 서명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의 확인.

(2)경찰측이 수색영장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상점주가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의 여부.

(3)시민권 획득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부처에 질의, 확인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잡지문제에 관한 경찰측과의 문제, 공급업자 등과의 협상전략을 협회회장단과 이사장단에 일임하여 신중히 대처하기로 결정하였다.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서적
액자 및 성화
초상화
☎ : 532-7909
549 BLOOR ST

광고를 원하십니까
광고국에 문의하세요 도움이 되어드릴것입니다.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週刊韓국
●신문에 없는 기사 ●김용신의 「人間市場」 ●한국 화제 人물을 연재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병헌

PEPSI-COLA PROMOTION

품목 - 750ml Pepsi Cola
750ml Diet Pepsi
750ml Pepsi Free
750ml Sugar Free
원가 - 41센트
이윤 - 소매 59센트 30.5%
소매 55센트 25.5%
기간 - 5월5일~5월18일
주문 - 20 c/s 이상
해당구역 - (서) Winston Churchill
(동) Brock Rd.
(북) New Market Jackson Point
기타지역및 지구협회에의 적용은 절충중임

온타리오 한인 실업인협회

도나쓰업 경영하시는 여러분에게

금반 Club Coffee회사에서는 실업인협회와의 협약하에 아래와 같은 좋은 조건으로 회원여러분과 인연을 맺기로 결정하였읍니다.
아직 주저하고 계신 동업자 여러분은 하루 속히 실협에 가입하여 Club Coffee회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
Coffee(Invoice Price)
Whole Bean - 5 lb bag $3.00 per lb.
Ground - Portion Pack $3.15 per lb.
Ground -Pounds $3.08 per lb.
◆리베이트 lbs당 15센트
◆배달-최하 20lbs(1c/s)
◆장비-회사에서 제공
차용장비무료대체
수리비(부속, 노력)무료 써비스
◆지불-익월15일
◆가격변경-30일전에 서면통지

Club Coffee COMPANIES Since 1906

연락처
강준남 886-2830
Joseph Ciccoritti 447-4981
실협사무실 533-7923

YORK
YORK ICE CREAM
A DIVISION OF CANADA PACKERS LIMITED
PROMOTION

품명 - Canterbury 1 ltr.
종류 - Vanilla
Chocolate
Heavenly Hash
Brickle Peacan Crunch
기간 - 4월21일~6월22일
원가 - 개당 $2.05
4개 $8.20
싸인 - 윈도우싸인과 캐비넷싸인제공

여름철을 앞두고 Premium 아이스크림 스페셜을 장장 2개월간 실시하오니 실협회원의 이용을 바라고 적정소매가격은 $2.39를 권합니다.

한국일보

"選擧法개정 考慮안해"

——國會、對政府질문 이틀째

◇머리 맞대고 "答辯"숙의 16일 상오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질문을 하는동안 金相浹국무총리가 답변자료를 준비하고있다。

"평화적 政權교체 비전있나" 질문
"北傀、反韓시위선동에 狂奔" 답변

국회는 16일 본회의를열고 金相浹국무총리와 관계장관들을 상대로 朴敬錫(民正) 吳上鉉(民韓) 白璨基의원(議政)등이나서 15일에이어 정치·외교·안보분야에 대해 이틀째 對정부질문을벌였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續開, 경제문제에대한 대정부질문을시작한다.

이날 첫질문에나선 吳上鉉의원은 국회법등 改革立法의 개정과 선거제도개선,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촉구하면서 『이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위해 가장필수적이고 기본이되는것이며 정부·여당이외치는 정치의 先進化를 이룩하기위해서도 반드시 취해야할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경찰의 폭력행위 根絶策▲不動產투기억제방안▲학원대학▲조속한 정치규제자解禁등을 촉구했다.

吳의원은 『제5공화국이지향하고 있는 單任制 정치발전, 평화적정권교체에대해모든국민이 납득할수있는 常識線에서의 비전이 무엇인지밝혀달라』고말했다.

白璨基의원은 多黨制 정신에 맞도록 각종선거법의 개정과 진정한 선거 公營制의 도입을 촉구한다음『경찰의인권유린사태재발을 방지하고 公權力의 정치적 惡用사태를 막기위해 人權옹호를 위한特別法의 재정과 경찰의중립화 및 수사기관에 대한 권력濫用을 통제하는 公安위원회를 설치하라』고주장했다.

그는 또한 기업자금이 再투자되지않고 다른곳으로 轉用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悲作外債를 억제할것을 촉구했다.

朴敬錫의원은 자신이 입수한 자료임을 전제 『카터政府말기에 미국의 戰略계획에참여했던 한고위당국자가中東과 유럽에서 분쟁이 일어날경우 일본은 有事時 韓半島에서 自衛隊파견등 군사지원을 할필요가있다』고 제의했고 그 구상이 레이건정부에서도 변함없는戰略구상인것을 시사했다』고 밝히고 이같은 日本自衛隊의 派兵案에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인가고 물었다.

▲북괴의 IPU (국제의회연맹) 총회와 올림픽 방해공작에대한대책▲韓·美·日3角安保협의회의 설치용의▲국가安保회의대신「안보담당부총리」를 신설할 용의등에대해 물었다.

金相浹국무총리는 답변에서 『현행 선거법은 우리의현실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만들어졌기때문에 개정을 고려치않고 있다』고 밝히고 『부득히 고쳐야할 필요성이있다면 이는 의원여러분들이 검토할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경찰의 담당업무는 公安업무뿐만아니고 예비군 관리업무와 지역방어등 안보기능도 있기때문에 운영의 妙로서 섬세하게만하면 군이 公安위원회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본다』고답변했다.

金총리는 『헌법45조에 따르면 대통령임기는 7년으로 되어있는 重任이안되는 單任制로 못박고있으며 임기가만료되는때는 선거절차에 따라 후임대통령을 선출하게된다』고 설명했다.

盧載源외무차관은 『북괴는 한국의 국제적지위향상에 초조한나머지 해외反韓교포의 시위선동, 反韓단체조직기도, 親북괴조직의 테러감행시도, 사절단을 초청, 한국을 비난하는등의 외교공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韓日간의 정치·역사적 특수성과 국민감정등으로 볼때 일본 自衛隊의 派韓은 생각조차 할수없다』고 말하고 『일본이 有事時에 大韓海峽을 봉쇄한다면 이는우리의 안보와 직결되는것으로 사전협의가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盧차관은 『소련과 중공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분쟁의 발생을 원치않으나 북한의권력承繼진통이 對南도발로 돌파구를 만들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소련과 中共은 北韓이 일단 도발하면 북한을 지원하지 않을수 없을것으로본다』고밝혔다.

美、韓半島 최우선防禦

"緊要지역": 戰略的가치 格上

尹국방·와인버거 會見

【워싱턴=李文熙·申鉉鎬특파원】와인버거美국방장관은 『한국은 미국의 필수불가결한 국가이익이 걸린지역이다. 미국은 이지역에서의 전쟁억지를위해 이미 핵우산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을 계속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와인버거장관은 15일 상오 2일간의 한미안보협의회를 마치고 尹誠敏국방장관과 공동으로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회의가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전쟁억지를위한 공동노력에 합의하는등 성공적이었다고 말했다.

와인버거장관은 핵우산의 보호에 언급, 소련의 SS20 중거리미사일은 유럽에서 뿐아니라 극동에서도 심대한위협이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기때문에 이런 소련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은 지엽적이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尹誠敏국방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전략적가치를 종래의 「중대한 이해지역」에서 서유럽 일본과 같은 「긴요한 이해지역」으로 격상시키는데 합의한 것은 이번회의의 중요한진전이라고 말하고 여러가지전쟁억지를위한 실질적 토의와 공동노력의 합의, 레이건대통령의 예방시 방위공약의재확인등 의미있는성과라고말했다.

◇一問一答 내용

—와인버거 장관은 한국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긴밀한 관계를 갖고있는 나라라고 보는가.

▲와인버거=한국은 공산주의자와 맞서서 싸우고있는 나라이며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한다.

—이번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에 주둔시킬 병력숫자나장비의 총량에관해논의했는가.

▲와인버거=북괴위협을받고있는 한국으로서는 군사물자와 병력숫자의 증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군사력의 증강 또는 감축에관한 토의는 없었다.

—한국에서 생산하는 미국형무기의 제3국 수출에 관한 협의내용은 무엇인가.

▲와인버거=한국에서 생산되는 미국형무기는 앞으로도 계속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미국측이 제3국 수출을 승인하게 되겠지만 이번에 한국의 방위산업 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토의를 했으며 태평양지역의 미군장비를 한국의 시설을 통해 가급적 많이 정비한다는 의견의 교환이 있었다.

—미국이 한국의안보를 중요시한다면 핵보호를 해야하지 않는가.

▲와인버거=미국은 현재 한국에대해 적절한 핵보호를 하고있다.

論山서 過速버스 12명轢殺

登校학생·人蔘밭가던 婦女子참변

자전거 피하다 정류장 덮쳐

37명重輕傷

【論山=鄭在龍기자】16일상오7시20분께 충남論山郡連山面天護里앞 1번국도에서 大田을떠나 論山으로가던 금남여객소속 충남5아2129호 직행버스 (운전사 朴昌圭·30)가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던 連山상고2년 安振盛군(17)을 피하려다 安군을 들이받아 즉사시킨후 다시도로 우측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던 崔昕禮씨 (51·연) 등을 덮쳐 그자리서 숨지게했다.

사고버스는 주민들을 친뒤 경사30도 높이3m의 언덕아래로 떨어져 30m가량 보리밭을 구르다 전주와 충돌하며 전복, 버스승객 徐석준씨(43·大田市中區楼馬洞 154의15) 등 3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사고는 운전사 朴씨가 제한속도 60km를 무시한채 폭6m의 2차선도로를 시속80km로 달리다 사고지점에서같은방향으로 자전거를타고가던 安군을 발견, 좌측으로핸들을 꺾었는데 安군도같은방향으로 피하는바람에 安군을 들이받자, 운전사 朴씨는 당황한나머지 핸들을 우측으로꺾으며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과속으로 듣지않아 길오른쪽에있던 학생과 주민들을 깔아붙였다.

사고버스는 이날상오 6시50분께 大田西部터미널에서 승객 50여명을태우고 첫차로 출발, 論山으로가던길이었다.

이날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모두 한동네주민들로 安군을 포함한 학생3명은 등교길이었고 나머지 부녀자 9명은 12km떨어진 인삼밭에 발엮는 작업을 나가기위해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다 변을 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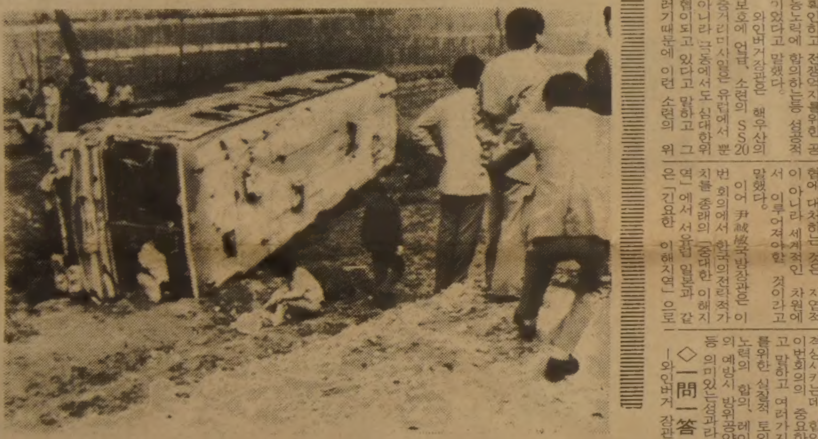
순식간에 12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고현장은 숨진 부녀자들이 갖고있던 농기구와 신발등이 어지럽게 널려있었고 현장주변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한편 버스에 타고있다 중경상을 입은 승객들은 지나가던 차량들에 실려 大田성모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있다.

충남도는 論山군청에 사고대책위원회 (위원장 趙基澤 論山군수)를 설치, 이날하오2시부터 유족대표와 버스회사측과 보상및 장의절차를 협의중이며 사망자의 유해는 論山백제병원에 안치, 분향소를 마련했다.

◆사망자

▲權順子(42·論山郡連山面天護里) ▲鄭坤順(43·여·논산 연산면) ▲安振盛(17·連山상고2년) ▲李官美(16·論山女高3년) ▲李順福(11·連山中2년) ▲李賢秀(45·論山郡連山面天護里) ▲崔姓禮(51·연산면) ▲朴禮粉(58·〃·연산면) ▲李成順(66·〃) ▲庾炳婉(56·〃) ▲鄭完淳(46·〃) ▲崔庚熙(53·〃)



◇3m언덕굴러 보리밭에 벌렁 등교하던 학생과 주민등 12명을 치어 숨지게한 사고버스。길옆 보리밭에 나뒹굴어있다。【大田=聯合】

"6일내에 出國하라"

핀란드命令 北傀대사 꽂다발속에5천弗

【제네바=聯】핀란드외무성은 14일하오3시30분께 北傀대사 유재한을 불러 6일이내에 출국하도록 명령했다고 현지 한국대사관소식통이 전했다.

北傀대사 유는 국제의회연맹 (IPU)총회의 서울개최를 방해하기위해 핀란드前국회의장 요하네스·비롤라이넨씨에게 5천달러를 꽃다발속에 넣어 건네준사실이 밝혀져 추방령을 받았다.

유로부터 돈을받은 비롤라이넨前의장은 5천달러를 핀란드외무성에내놓은후외부와의 접촉을 기피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헬싱키의 신문·방송·TV등은 15일 아침부터 北傀대사 추방기사를 톱기사로 다루기 시작했다. 핀란드駐在 한국대사관의 康國男공보관은 이같은 뉴스가 터져나가자 헬싱키주재 北傀대사관은 발길이 끊겨 초상집같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佛前국회의장死亡 北傀파티서 술먹고

【제네바=聯】아쉴르·페레티 전프랑스국회의장이 14일하오 북한무역관에서 베푼 연회에 참석중 사망함으로써 그곳에서 마신술때문이 아닌가하는 관측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프랑스의 유력신문인 르·피가로紙는 그가 파리근교에서 열린 박람회를 참관하는도중 가브리엘관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15일 보도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그는 북한무역관이 金日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베푼 연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몇몇관측자들은 이러한 프랑스고관이 북한이 개최한 연회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에 호기심어린 관심을 보이고 있다. 北韓측이 파티나 연회에 초대한 외국인들에게 인삼주나 뱀술을 제공하는 것은 관례로 돼있다.

日 KGB사건 본격 搜査

日警, 우에다議員도 조사

【東京=宋孝彬특파원】일본수사당국은 16일 KGB요원 레프첸코가 일본에서 활동했을당시의 공작원에 대해 정식수사에 착수했다.

일본경시청은 외무성과 긴밀히연락하여 특히 KGB요원으로포섭된 나자레라는 암호명으로 불리는 외무성직원에 대한 수사를펴는한편 이미 실명으로 알려진 공작원8명에이어 사회당중진 우에다·다꾸니(上田卓三·4선)의원등에대한조사에도 착수했다.

나자레로 불리는 외무성직원은 외무성의 자체조사에서 일본의 비밀암호문과 각대사관으로부터 들어오는 전문을 전혀 누설한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拷問행위 加重처벌

民韓, 法改正案제출

국회본회의는 16일 民韓黨의 許京萬의원등 66명이 발의한 수사기관에서의 인권유린행위자에 형벌을 가중토록 하는것을내용으로한特定범죄加重처벌법 개정안을접수, 이를 法司委에 회부했다.

불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社會漫評

이렇게생긴 「大盜」를 찾습니다요…

地平線

아메리카에는 3가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말이 있다。아메리카대륙에 미국、캐나다、멕시코가 버티고 있다는 지리적 차원의 말이 아니라 미국의 정치를 쭉자한는 뜻에서 나온 표현인 것이다。그것은 광대한 土地를 자랑하는 본래의 미국과 함께 다른2개의「小國家」의모습이 있음을 의미한다。▼뉴욕市와 캘리포니아州가 바로 그「小國家」들이다。미국에는 보스턴市주변에 형성된 대학과 과학을 중심한 특색있는 기성사회가있고、워싱턴市에는 정치·행정을 주로한 또하나의 그런 사회가 있다。둘다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특권계층의 집합체일뿐「小國家」로 지칭되지는 않는다。흔히 캘리포니아州는 未來의 實驗室로 불려진다。폭력을 배제하고 變革을 요구한「히피집단」도 크게 보아 캘리포니아가 그발상지다。▼60년대의 反戰學生운동 진원지는 현 캘리포니아의 버클리대학이었다。오늘날 캘리포니아는 어느州보다도 경제적인 풍족을 누리고 있다。그러나 60년대의 前衛的역할은 이제 다소 상실한것 같다。그에비해 뉴욕市는 아직 치열한 발전투쟁을 계속하고 있다。市의 財政은 破綻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大都市로서의 세계적 威風은 그대로 당당하다。미국내에 未來의 實驗室이 지금도 남아있다면、이제 그것은 뉴욕市라고 할수있다。▼뉴욕의 살림살이는 곤경스러우나 침몰하지는 않는다。그 市는 巨大한것이고 건설또한 계속 진행되고 있다。그의 한 특성은 뭐니뭐니해도 세계演劇의 중심지라는데있다。바로 市자체가 세계 곳곳서 몰려든 人種의 무대로 되고 있다。市內 관광버스의 한 안내인은 뉴욕으로 몰려드는 관광객의 약35%는 뮤지컬등 브로드웨이의 연극을 보기위해서라고 소개하는 것을 들었다。이런 점에서도 뉴욕은 미국의 未來를 가능한 실험극장이라는 것이다。▼우리나라 무대·영화예술 발전의 큰 재전이 되고있는 한국일보社제정 제19회「한국영화예술상」시상식이 15일 있었다。연극에서는「신화1900」,TV드라마부문서는「風雲」이 각각 大賞의 영예를 차지했다。서울의 연극이 서울市의 발전만큼 뻗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절실해 진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영 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Tom Hwang Real Estate Limite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ARIO M3B 1Z3
TELEPHONE 449—8644, 449—8446, 449—8645, 445—1516

금주의 새 리스팅

●버라이어티 스토어
(1)주매상: $12,000, $9,000, $6,500, $4,300, $4,000, $4,000, $3,800(임윤식)
(2)그로서리: 주매상 $14,000 asking: $200,000(이헌영)
주매상 $7,500 asking: $125,000(이헌영)
주매상 $14,000 asking: $250,000(황용현)
(3)기프트숍(Gift Shop): 연매상 $473,000 asking: $159,000
●하드웨어: 연매상 $250,000 asking $35,000+Stock(임윤식)
●Nut & Candy Shop
(1)Busy Shopping area에 있는, 권리금 $47,000(유웅복)
(2)Shopping Center에 있는, 권리금 $107,000(유웅복)
(3)Downtown Shopping center에 있는, 권리금 $35,000(황용현)

●꽃가게: 여자분 혼자서 경영이 가능한 주 6일 오픈.
권리금 : $45,000(임윤식)
●가게 주밑 건물
(1)주매상 $5,000 예상하는 빈가게 down $25,000(황용현)
●드라이크리닝(Dry Cleaning)
(1)주매상 $1,800 오샤와, 새로꾸밈 asking: $69,000, down: $40,000(황용현)
(2)주매상 $1,300 스카보로 아파트 밀집지역 asking: $48,000(황용현)
●Fast Food(Mall에 있는) asking: $88,000(유웅복)
●Fish & Chips(downtown shopping center에 있는)
주매상: $8,000, asking: $279,000(황용현)

●투자용 건물
(1)프라자(4개의 스토어를 가진) Asking: $525,000, down $120,000(이헌영)
(2)Chicken & Mac's가 있는 Plaza
Asking: $625,000, down: $200,000(이헌영)
(3)Laundry 가게 를(6개의 아파트를 가진) down : $150,000(유웅복)
(4)코너 건물, asking: $89,000(유웅복)
(5)15개 스토어가 들어있는 Plaza, asking: $1,350,000(유웅복)
(6)가게 달린 집(Yonge at Aurora) asking: $136,000(유웅복)
(7)Plaza(14개 가게가 달린) asking: $1,500,000(황용현)
(8)건물 달린 가게(코너건물) 주매상 $5,000
가게: $50,000, 건물: $120,000(황용현)
(9)가게 달린 집, 연매상: $300,000, asking: $154,000
down: $60,000(유웅복)

주택상담실 설치

그동안 저희 회사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신 교민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금번 저희는 많은 분들의 요구에 의해 주택상담실을 설치하였읍니다.
현재 소유하고 계신 주택을 파실 계획이시거나 새 주택을 마련코저 하시는 분들께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관한 상담에 기꺼이 응하고저 하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좋은 조건의 모게지 알선
(2)가옥의 가치 평가
(3)가옥의 구조변경에 관한 문의
(4)가옥의 투자 상담
(5)가옥 구입시 필요한 제반 지식 제공

황용현
(R)286—1548

이헌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임윤식
(R)636—7950

임분옥
533—9061

유웅복
(R)44 7—9395

社說

北의 誤判소지 一掃
—韓美安保協성과 發展的이다

今年의 韓美年例 安保協議會는 休戰協定3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韓半島를 에워싼 安保環境이 자못 긴장된 가운데 개최된것이다. 아직껏 韓半島의 平和定着을위한 外部環境 조성에 관련된 전망은 불투명하기 그지없는데다가 올들어 蘇聯은 SS20미사일의 이동배치등 極東軍事力을 현저히 증강하였고 또 이를 배경으로한 北傀의 戰爭준비 히스테리가 눈길을 끌게한다.

그러므로 이번 韓美安保協議會에 쏠린 국제적 관심은 예년이상으로 비중이 크게 마련 이었다. 마침내 尹誠敏국방장관과 와인버거長官을 수석대표로 하는 韓美安保協議會는 3일간의 회의를 진약한 11개항의 공동성명을 15일(현지시간) 자로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퍽 알찬 성과를 담은 고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주목되는 성과라고 볼것은 美國이 韓半島의 戰略的 중요성에 관한 평가를 계속적으로 격상시켰다는 사실이다. 공동성명 제4항은「韓國의 安全保障이 東北亞의 平和와 安定의 주축이 됨은 물론, 美國의 安全保障에도 필수적」이라는 인식일치를 천명한 것이다.

이 경우의「필수적」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와인버거 美國防長官자신이「死活的 利害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有事時에 필요하다면 核武器를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결의의 표명이다. 또 韓國방어가 美國의 對蘇전략상 차지하는 위치를 부각시킨 것이기도하다.

이같은 확고하고 분명한 韓半島의 戰略的價値觀 천명은, 休戰이후 初有의 일이다. 지난 2일 공개된 美國務省의 비밀문서『1951년 韓國과 中共』이 30여년전에 갑론을박했던 워싱턴의 對韓戰略論爭을 회상한것과 대조할적에 실로 今昔之感이 뚜렷한 획기적인 結實이라고 평가된다. 이 現實政治的 意義는 北傀나 그背景勢力이 50년대의 南侵과 같은 誤判을 되풀이할 소지를 완전히 봉쇄해 버렸다는데있다.

그러한 韓國防衛결의를 바탕으로 戰爭抑止와 有事時의 對應協力을 보장할 여러가지 구체적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본다. 駐韓美軍現代化계획의 추진과 早期警報시스팀의 보강, 韓美聯合司의 효율적 운영도 다짐되었다.

특히 韓國軍의 戰力증강과 병행되어야할 防衛産業육성(防産品의 해외수출문제 포함)에 새로운 關心을 보여준 것이다. 美軍장비의 정비를 위한 韓國內 시설이용의 확대도 합의되었다. 韓國에 대한 對外軍事 판매차관의 조건을 개선할것을 확약한데 보태서, 戰略소요물자의 사전비축 증대와 軍需支援體制 보강에 관해서도 일치를 보았다 한다.

나아가서 양측은 韓半島의 平和定着을위한 끈질긴 노력과 全斗煥대통령의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에 대한 전폭적 지지와 유엔軍司令部가 平和유지기구로서 계속기능해야하는 당위성을 강조한것이다.

그런데 北傀와 그 背景國들은 한편으로 休戰協定의 폐기와 美軍철수를 노리는가하면, 다른 한편 南北韓 交叉承認論까지 배척하면서 軍事的위협의증대에 골몰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다볼수 있는 장래에 걸쳐 韓半島의 安定과 平和를 수호하기 위한 유엔軍司의 存在意義와 韓美간의 安保紐帶는 의문의 여지없이 확고부동해야 할것으로 믿는다.

우리는 또 올해의 韓美安保協議會가 韓半島의 戰略的價値觀을 확립한것과 관련하여 美國의 世界戰略이 카터行政府시대의「스윙戰略」을 지양하고 同時多發사태에 적절히 對應하는 戰略으로 이행했음을 헤아리게 된다. 어느 면으로 보나 好戰的인 南侵획책 세력에의한 誤判의 소지는 일소된 셈이다. 15차 韓美安保協議會는「가장 좋은 盟邦관계」의 定立을 세계앞에 늠름히 과시하였다.

또 뼈아픈 交通慘事
—停留場손님 무더기轢死란 웬말

40여명의 사상자를낸 어제의 論山군大禮리 정류장앞 市外버스大慘事는 봄비기 시작한 봄철地方버스교통安全에 큰 경종을 울려준것임에 틀림없다.

보도된대로 大田소재 모여객소속 大田—論山間 직행버스가 16일아침 7시 좀 지나 論山군連山면大禮리소재 국도변 시내버스정거장앞서 버스를 기다리던손님을 치어 12명을 즉사케하고 차에 탄 손님 30여명을 다치게했다 한다.

우선 이사고로 불의에 목숨을 앗긴 12명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그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와 함께 비통속에서도 용기를 잃지말도록 격려를 보내고자한다. 忠淸南道에서는 柳지사와 咸경찰국장이 현장에 달려가서 사후수습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먼저 희생자들의 장례를 소홀함없이 繼修할것과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간호에 정성을 다해야 할 일이다.

정확한 사고원인은 아직 알수없다. 하나 3m 높은 곳에서 밭으로 떨어진 사고버스의 속도계가 65㎞를 표시하고 있었다니 이는 그 버스가 자전거탄 한 소년을 비키려다 사고를 냈다는 점과 더불어 사고원인및 책임소재를 가리는데 주요한 하나의 증거로 되리라고 믿는다. 아무리 포장된 국도라 하더라도 사실이라면 시내버스정거장 앞에서, 그것도 버스를 기다리던 10여명의 손님들이 늘어서 있는 곳을 운행하는 속도로선 과속으로 생각할수 있기 때문이다.

굳이 이번사고에 빗대려는 뜻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 기회에 그간 흔했던 지방길버스사고들이 대개 過速으로 연유한 것임을 상기시키고 모든차량운전자들과 소속회사에 대하여 봄 여름철 사고에 대하여 미리 경계할것을 당부해두련다. 과속운행은 운전자들이 교통규칙을 위반하면서 스스로 저지르는것과 소속회사의 영리상 조건때문에 자행되는 경우가 있다. 관계당국은 도시·농촌할 것없이 모든 차량들의 과속을보다 엄격히 단속하기 바란다. 사람의 목숨은 과속차량의 희생물이 되기에는 너무나 소중하고 고귀한 것이다.

교통사고는 이제 큰 公害의 대상이 되고있다. 작년에는 그 때문에 전국에서 5천8백82명이 숨지고 11만7천5백46명이 부상하였으니 평균하루에 死亡16명·부상자3백22명이 난 셈이다.

이번 사고의 희생자들은 아직은 이른 아침에 인삼밭으로 일하러 나가려던 대부분 사·오십대의 한마을 婦人과 수명의 학생이었다. 이로 미루어 그 부녀자들은 生計형편이 어려운 처지임을 알수있다. 희생자들이 家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것인가를 짐작케 한다.

피해보상과 위로금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런 사정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두고 싶다. 또 졸지에 부인이나 어머니 또는 어린학생을 잃은 유가족들의 처지를 당국과 온 사회의 인정이 감싸 주었으면 한다. 우리는 이런 慘事가 날때마다 언제나 다시는 그같은 不祥事가 빚어지지 않도록 만전한 태세를 갖출것이 촉구되고 다짐되곤 했었다. 지난해 5월 19일아침 釜山에서 13명의 목숨을 앗은 大型버스사고의 기억도 아직은 생생하다. 이번에야 말로 정정 그런 버스慘變이 다시는 없게끔 根絶을 서로 다짐하며 엄히 실천토록 하는바 있어야 하겠다.

내일總選…그展望
泰、右翼聯政 들어설듯
어느 政黨도 過半확보 어려워
內憂外患속 民主 장래에 관심

【방콕=聯】 정치적 암살과 강력한 베트남軍의동부국경위협이라는 內憂外患에 직면한 타이에서 오는 18일 총선이 실시된다.

3백24석의 새로운 下院구성을 위해 실시되는이번 총선을 앞두고 지난1개월간 선거운동기간중 2명의 의원후보와 5명의 선거운동원이 살해됐다.

또 인접국 캄보디아를점령한 베트남軍이 타이국경을 넘어 여러차례 도발해왔다.

배트남軍의 越境은 일단 타이의 F5E전투기의 공습으로 격퇴됐지만 이것역시 선거전야의 긴장을 고조시키고있다.

이번 선거에는 약15개의 政黨후보와 무소속을 포함 총1천8백여명의 후보가 경합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전직수상도 2명이 끼여있다.

타이는 지난32년 쿠데타로 절대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바뀐이래 15차례의 쿠데타와 쿠데타시도를 겪었으며 최근에는 지난81년 4월1일 탱크가 방콕시가지를 점거한 일이 있다.

타이가 이번 총선을 실시하는것은 정치체제의 민주화를 향한 결의를 과시하려는데 있지만 많은 관측통들은 당초 오는 6월12일로 예정됐던 선거일이 갑자기 앞당겨짐으로써 겨우 1개월내에 선거운동을 벌이는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는 총선일자는 지난3월 軍部가 전통적인 지배적정치권력을 영속화하기 위해 헌법개정안을 의회에 제출 이 발효되기 3일전에 실시되는 것이다.

타이 民主黨지도자 비차이 라타쿨씨는 방콕시내의 군중집회에 몰려든 수만명의 지지자들을 향해 연설하면서 이번 총선은 타이가 민주주의로 가느냐 그렇지못하면 독재화되느냐의 기로를 결정할것이라고 호소했으나 이 개정안이 부결된후 변경됐다.

18일의 총선은 또 정당 선거법에 유리한 새로운 선거법에 의해 실시된다.

방콕의 한 선거구에 출마한 쿠크리트·프라모즈 前수상(72)은 여러 정당이 난립한데다 선거운동기간이 짧아 단일정당이 정부를 구성하기는 극히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쿠크리트 후보는 UPI 통신과의 회견에서『만일 과반수의석을 확보하는 정당이 없다면 결국 연립정부가 들어설 것이며 타이의 연립정부는 효과적인 정치를 수행할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제기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총선결과에 대한 전망은 퇴역軍장성이수상으로 들어앉는 右翼연립정부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같은 전망은 軍部지도자들과 야망에 찬 젊은 정당정치인, 실리적인 정치적 경제인들의 이해관계를 취합할때 강력한 軍部가 정치제도내에서 합법성의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무력행사를 자제할것이라는 추측에 기반을 둔것이다.

그러나 社會行動黨을 비롯한 민주정당들은 軍고위장성들이 일시에 정부와의회로 진출하는것을 거부하고있다. 이들 정당들은 軍장성의 정부·의회 진출을 추진한 아르티트·칸랑·에크 육군최고사령관에 맞서『투쟁』할것이라고 선거유세를 통해 시사한바 있다.

外信안테나

최근 레바논주둔 兵力增强說속
이機 南레바논상공 대규모비행

【베이루트AP=聯】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레바논주둔 자국병력을 각각 증강하고있다는 보도가 나도는 가운데 이스라엘전투기들은 15일 연이틀째 남부레바논상공을 대거비행했다.

목격자들은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고공비행을 한것으로 미루어 정찰임무를 띤것으로 추측된다며『비행기 수는 하나하나 헤아릴수없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목격자들은 또 이스라엘전투기들이 이스라엘점령 해안지역과 이스라엘軍과 시리아軍이 대치하고있는 베카평원을 비행했다고 전했다.

레이건 人氣급상승
먼데일과 글렌압도

【워싱턴=聯】 레이건美대통령의 인기가 최근 몇주동안 주로 국내경기회복에 힘입어 급상승, 84년도의 民主黨대통령후보지망자들보다 높은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美國의 ABC방송과 워싱턴·포스트紙가 지난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레이건대통령은 民主黨의 월터·먼데일前부통령과 존·글렌상원의원(오하이오州)에 비해 각각 46대45와 44대43이라는 근소한 차의 비율로 앞서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崔圭夏 전대통령 ·教皇방문 면담

【바티칸시티AP=聯】 西유럽을 순방중인 崔圭夏前대통령은 15일 교황 요한·바오로2세와 만났다고 바티칸당국이 이날 밝혔다.

국정자문위원회의장인崔圭夏前대통령은1개월간의예정으로西歐국가를순방중이다.

蘇、시리아와 頂上회담 개최설
레이건의 中東평화안 대처위해

【베이루트AP=聯】 소련과시리아는 교착상태에빠진 레이건美대통령의 중동평화안에 대처하기위해 곧 정상회담을 가질지도 모른다고 레바논의 팔랑헤黨기관지 알·아말이 1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아랍외교소식통들의말을인용, 지금까지 소련권밖에는 배치되지않은 것으로알려진 신형 샘(SAM)미사일을 포함한 고도의방공체제를 설치하기위해 소련고위군사대표단이 지난주 비밀리에 시리아를 방문했었다면서 그같이말했다.

近視교정手術 성공
患者74% 경과좋아

【내슈빌(美테네시州)UPI=聯】 근시교정수술을 받은 환자중 74%가 수술후 1년이 지나도 좋은 시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내슈빌의 안과의 피터·애로스미드등 이테네시안과의협회에 제출한연구보고서가 15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백1명의 수술환자중 6%는 가끔 안경을 끼며 3%는 야간시각장애를 느끼며 나머지 17%는 계속 안경을 끼기는 하나 수술전같이 두꺼운 안경은 끼지않는다는것.

蘇聯에서 처음 이 수술을 했을 당시 근시치료가 전부 가능한것으로 생각되었었다.

土여객기 拉致劇 7시간만에 끝나
犯人 체포돼… 한국인등 승객무사

【아테네外信종합=聯】 한국인1명을 포함한 1백13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채 이스탄불에서 이즈미르로 비행중 한납치범에 의해 납치돼 15일 아테네공항에 비상착륙했던 터키 국내선여객기의 납치사건은 그리스 무장경찰이 조정실에 뛰어들어 범인을체포함으로써 7시간의 납치극으로 끝났다.

和機의 廣州着陸權 中共서 취소해버려

【北京聯=聯】 中共은 네덜란드가 臺灣과 민간항로를개설한데 대한 보복으로 15일 그간 네덜란드 KLM항공에 부여해온 廣州비상착륙권을 취소했다고 믿을만한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美、西方동맹국에 對蘇 禁輸확대 제의

【東京聯합=聯】 미국은서방동맹국들에 대해 對蘇금수조치를 확대할것을 제의했다고 日本의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정부소식통의 말을 인용, 미국의 이같은 對蘇禁輸확대조치제의는 오는 28·29일 이틀동안 파리에서 열리는 對共産圈輸出禁制委員會(COCOM)회의에 상정될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이 對蘇금수조치대상으로 포함시키길 원하고있는 품목은 석유및천연가스개발장비, 산업용로보트및 도지기부문등이라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그러나 日本·프랑스및 기타 COCOM회원국들은 그같은 조치가 군사용장비의 對蘇수출을 금지하기위해 결성된 COCOM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美國이 이같은 조치를 제의하게 된것은 소련의 에너지개발기술이 크게 향상돼 석유및 천연가스판매수입이 늘어나게되면 군사비지출을 더욱 늘리는 사태가 초래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이어 미국은 오는 5월말 미국 윌리엄즈버그에서 열리는 西方7대선진국 정상회담에앞서 서방동맹국들의 결속이 한층 강화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核배치 논의할 美·西獨頂上

레이건美대통령(左)이 15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헬무트·콜西獨수상과 만나고있다。이회담에서는 금년말로 예정된 美미사일의 유럽배치계획이 다루어지게된다。【워싱턴15日AP電送=聯合】

美、開發 결정
공중발사 巡航미사일

【워싱턴AP=聯】 美공군은15일 敵의 레이다 網추적을 따돌릴수있는 스텔드기술을 이용한것으로 알려지는 新型공중발사순항미사일(ALCM)을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제너럴·다이내믹스社에위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군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그와같이 말하고 이 새로운 미사일의 개발계획에 따라 발주한 2백기이상의 ALCM이 오는10월1일부터 시작하는 회계연도안에는 인도되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蘇외교관 또 추방
英、보복에 再報復

【런던AP=聯】 영국정부는소련이 지난8일 소련주재 영국공군무관1명과 언론인1명을 추방한데 대한 보복으로 15일 런던주재 소련대사관의 아나톨리·A·체르나예프 3등서기관에게 추방령을 내렸다고 영국외무성이 발표했다.

越、中共에 포격
新華社、국경분쟁도발 비난

【北京AP=聯】 베트남軍은中共국경지역의 한 中共마을에 집중포격을 가하는등 최근 국경지역에서 무력도발을 강화했다고 中共관영 新華社통신이 15일 비난했다.

新華社통신은 지난13일에 이어 이날 베트남軍의 국경도발을 비난하면서 이같은 베트남軍의 행위는 그들이 최근 캄보디아저항군과 난민촌에 가한 공격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이통신은 베트남軍이 지난 11、14양일간 中共 雲南省의 쿠린지역에 대해 4백28발의 포탄을 퍼부었다고 전했다.

記者의 눈
對政府질문 虛實

흔히「民意의 殿堂」으로 불리는 국회를 얘기할때 가장먼저 實感하게되는것은 뭐니뭐니해도「對話의 기능」을 들게된다。이對話란 한마디로 정부와 국회 즉 국민과 정부와의 對話, 즉의사소통을 의미한다。

정부와 국회의對話는 법안등이각종議案심의과정에서 이뤄지지만 국민들에게 피부感있게 와닿는것은 역시 국회에서의 질문 답변이라고 할수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질문 답변이 제구실을 다하기위해서는 眞實性·誠實性·實現性、그리고 時宜와 深度가 반드시 바탕을 이뤄야한다。

의원들의 공허한 人氣발언、폭로전술、지리한 長廣舌이나 정부측의 관에박은 선처와 검토다짐、東問西答式의자세는 정치不信을 加重시켰던 지난날 議政의 어두운 殘滓들임은 잘알려진 사실이다。

올들어 처음열린 이번임시국회는 6일간의 對정부질문중 16일로서 정치·안보·외교부문에 관한 질문을 끝냈다。

기자는 2일간의 질문답변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연國政의문제점을얼마만큼 깊이있고정확하게파헤쳤으며정부역시어느정도성실과 진실한내용으로국민의궁금증을시원스럽게해소시켰느냐에는많은 感懷를느끼게된다。

이미 앞서있었던 各黨의 대표연설에서 總論格으로 제시된대로 정치·안보·외교부문의 이슈는 改革立法개정、地自制실시、평화적정권교체、경찰관의 폭력수사、財閥의 토지再買入부정사건、방위력증강、북괴의 IPU총회방해등 對南교란책동阻止、韓半島주변정치변화에대한 對應策들로 요약했다。

15·16 양일간 7명의 與野의원들이나선질문중에는 정부의 秕政을 채찍질하고 문제의 본질을 摘示、改善과 결단을 촉구한면도있었으나 상당수의원들은 百貨店式으로 모든것을 많이다양하게 擧論했다는 記錄用으로 羅列하는데 그친감이 없지않았다。

정부측역시 경찰관폭행근절등에관한 다짐등 외에는「시기尙早」와「검토」는「원칙풀이」를 되풀이하는것으로 일관했음을 부인할수가없을것같다。

이번질문 답변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時局과 國政현안에대한 與野의 視角、국회와 정부의 觀點이 다르고 거리가있다는점을 들어야할것이다。

물론 갖가지 현안과 현실을 보는 눈인 저마다 다르고 또 異見이 있을수 있겠지만 어떻게보면 이는곧 그만큼 국회와 정부간의對話에 문젯점이 內在하고있다는 反證도 되는것이다。

이제국민은 내용없는 질타와 호통、폭로보다 정확한 문제제기와 추궁、그리고 성의와 진실을 담은 답변을 기대하고있다는점을 국회나 정부모두가 깊이생각해야 한것같다。

영국 국민들이 템즈江邊에있는 議事堂의불이 꺼지지않을때 편안히 발뻗고 잠을 잔다는 말은 그만큼 국회와 政府의對話를 믿는다는 얘기라고 할수있을것이다。

【李成俊정치부차장대우】

民韓、黨紀위원임명

柳致松民韓黨총재는 16일 黨紀위원으로 沈憲燮 鄭眞鉉 金秉烈 金永俊 柳寅範 李炯培 池楨道 申鎭洙 申元淏 李洪培 康源采의원등 11명을 임명했다。

IPU理事會 참석
한국代表1陣 出國

오는25일 핀란드의수도 헬싱키에서 열리는 제1백32차 국제議會연맹(IPU)이사회에 참석할 한국대표단의 權正達(단장)·李台燮·任哲淳(이상民正)、李閔馨의원(民韓)등 1陣이 16일하오 출국했다。

경무관6명 異動

내무부는 16일 한길합섬이사 金根祖씨 고문치사사건과관련、安喜相수사1과장을본부감식과장으로 전보하고 후임에 金政雄경무관(해경대 관리부장)을 전보하는등 6명의 경무관을 이동시켰다。

▲해상보안과장 宋佳垣(승진) ▲경찰종합학교교수부장 許鎭遠(승진) ▲치안본부외사과 申周鉉(종합학교 교수부장) ▲치안본부근무 崔弘奎(駐日한국대사관)

人事異動

大韓敎員共濟會

▲관리이사 李鍾九

(18일자)

政局往來

"정부·與黨에「舊態」비난 받아온 野黨이 오히려 개혁세력"

◆重複질문에 발언途中 下車까지

정치·외교·안보에대한 이틀째 對정부질문을 벌인 16일의 국회本會議는 重複질문과 답변이 續出하여 맥빠진 분위기.

첫 질문자인 吳上鉉의원(民韓)은『改革추도세력의 改革의지는 퇴색되어 保守내지 守舊勢力化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꼬집은뒤『반대로 정부와 여당에 의해 항상 비생산적이고 舊態依然하다는 비난과 의심을 받아온 野黨이 오히려 개혁의 세력으로 등장하고있다』고 주장.

그는 또 지난번 陳懿鍾民正黨대표위원이 연설에서 외국의例를 들어 국회법改正不拔論을 전개한데대해『여기는 런던이나 파리가 아닌 서울이며 그러한 주장은 억지』라고 공박했으나 발언시간(30분) 초과로 이번국회의 첫「途中下車」를 기록.

[illegible]의원(民政)은『남의돈을 무더기로 끌어내서라도 부동산에투자、投機[illegible]이나 노리는 악덕기업인의 [illegible]이 존재하는한 선진조국창조라는 구호는 실현되지않을 것』이라고 경제시책을 비난했는데 질문이 끝나면서 2층방청석에있던 지역구민들이 박수를 치자 사회를 보던 [illegible]부의장은『박수를 치면 안된다』고 경고.

마지막으로 [illegible] 朴[illegible]의원(民正)은『국가안보는 결코 어느 한 계층이나 특정집단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수없고 또한 專有物일수도 없다』며『과거 안보가 政權安保의 수단으로 이용된때가 있었던 경험때문에 안보에대한 [illegible]이 있는것이 현실이지만 안보상황에 관한 지식과 대응에 있어서 [illegible]을 최대한으로 넓혀가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촉구했다.

◆合心한 결과 약간 풀린데도 있다

이날 金相浹국무총리는 전날에이어 의원들이 다시「막힌데는 뚫고 굽은데는 편다」는 그의 취임초 발언을 들어 질문하자『지난1년을돌이켜보면 국내외의 어려운 상황가운데서 물가는 5%、실질성장은5·6%로 기록하는등 국민과 의원여러분이 모두 합심한결과 약간의 풀린데도 있었다』고 가볍게 되받아 의석에서 웃음이 터졌다.

그는 또『작년말 光州사태관련자에 대한 관용조치와 1차정치解禁조치는 국민들 사이의 신뢰분위기조성에 큰기여를 한것으로 본다』고 [illegible]한후『그러나 아직도 선진적 [illegible]에 도달하기까지는 해결해야한짐이 너무도 많고 무겁다』고 답변.

◆의원들 5분이상 待機하지않도록

民正黨은 국회의사당 1층에있는 30여평의 부총무실을 의원휴게실처럼 꾸미고 부총무 명패까지 없애는등 이번 국회들어 의원들의 대우에 사뭇 神經을쓰는[illegible].

이러한 노력은 지난번 당직자임명장수여식에서 [illegible]의원이 중앙당의 대우소홀을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이에 많은의원이 內心동조한것과 때를 같이하여 더욱 눈길을 끌었는데 權翊鉉사무총장은『앞으로는 총재가 참석하는 행사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원들이 5분이상 대기하지않도록하라』고 이미 사무처에 지시한바 있다.

◆[illegible]추도식 8백여명 참석속嚴修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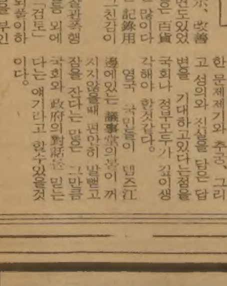
◆北傀追放관계 반응수집위해 부산

국제의회연맹(IPU) 서울총회의 방해공작과관련、핀란드[illegible] 북한대사가 [illegible] 16일 관계지들로 [illegible] 外公館으로부터 각국의 반응을 수집하느라 부산.

한관계자는『[illegible]紙들이 [illegible]』면서『북한의 [illegible] 화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

또다른 간부는『이번 사건은 북한이 아프리카의 국가들에게 써먹던 原始的手法을 서방국가에까지 그대로 활용하려한 愚行』이라면서『북한이 우리와 선의의 경쟁을 하려하지 않고 남의 잔치에 재를 뿌리려는 나쁜짓만 골라하다가 그 죄값을 받은셈』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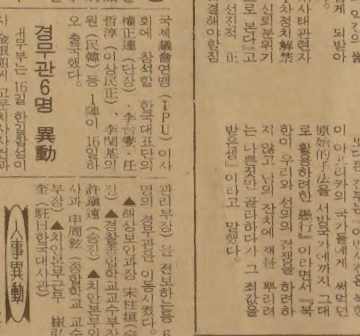
SANYO 전자계산기 전자저울



□저렴한 가격
□각종 신품과 중고품
$295로부터
AKRON CASH REGISTER
248 Browns Line, Toronto, Ontario M8W 3T4
(416) 251-7054

일본식당
舞子
HAPPY HOUR
(월요일~토요일) 오후5시~오후7시까지
초밥 5개 무료제공
주류(포도주, 맥주제외) 두잔에 한잔값만
401 BLOOR ST. E.
☎967－0922 (블루어×셀본서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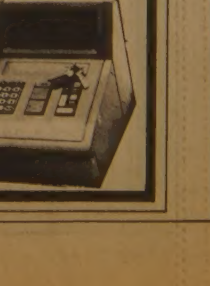
아세아한약방
Health Food Center



길림산녹용, 진품웅담
원녹용, 야생녹용
특별세일
지방문의환영
⊙관절염 특효약
⊙산삼 도착
⊙자동전자약탕기
⊙종합비타민 ⊙우황청심환 ⊙홍삼 ⊙간장병
⊙인삼 ⊙NUT 일체 ⊙보약 ⊙비만증 ⊙부인병
⊙웅담 ⊙녹용 ⊙종통 ⊙신경통 ⊙양기부족
⊙산삼 ⊙사향 ⊙심장병 ⊙고혈압 ⊙위장병
645 BLOOR ST. W. TORONTO
☎: (416)530－0522, 530－4900

Masa 진짜 일본음식
Japanese Restaurant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
977-9519
All major credit cards accepted
195 Richmond West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창립 7주년) $595.00
분납가능 SANYO
취급품목
한글, 영문 타자기
금고, 카비넷, 책상,
각종 계산기, 각종도장



Tel. 532-0111
622-6754
교포 경영
김 성 수

한국민족주의 原點을 찾는다

한국일보 (특집판)

現代史의 現場 ㉔

題字 原谷 金基昇

榮譽와 汚辱사이의 漂流

李承晩

抗日40년… 長期집권이 墓穴

人間像 바르게 定立되어야

洛山 梨花莊뜰에는 벌써목련꽃이 지고있었다.

듬성듬성 솟은 산비탈 비탈바위를 운치있게 헤치고가지뻗은 봄꽃들 철늦은것들은 겨우 누렁꽃을 맺고 있을뿐인 4월중순인데도 深齋의 목련은 벌써 제철을 지내버렸다.

격동의 建國前期를살고간 우남 李承晩의 집. 1945년 해방을 맞고 돌아와 일시 敦岩莊, 마포장에 거처하다가 1946년 독지가들의 주선으로 梨花莊을 구입한후 景武臺에 들어갈때까지인 1948년8월까지, 그리고 1960년 4·19의거로 下野하여 하와이로 亡命하기전 열마동안 이곳에서 살았다.

초대장관후보자들을 한사람 한사람 불러 면담하던 5·6평쯤되는 組閣堂이 비탈에 우뚝서있고 그밑으로 검소한 선비집의 본채와 안채 2棟이 앞뒤로 서있다.

『아버님의 이름은 벌써 오래전부터 잊혀져왔읍니다. 지정 그분을 연구해보려는 분도 없고 또 간간이 아버님 애기가 言論에 오르내리지만 터도 안닿는 惡評밖에 없읍니다』

李承晩박사가 하와이로 亡命간뒤 종중추천에 의해 양자로 들어온 李仁秀씨(明知大교수·정치학박사)는 그동안의 무책임한 李박사評을 비탄하면서 『잘못된 李承晩論이 우리의 건국사를 덮어버릴정도로 위험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李承晩은 1960년 4월28일 『국민이 원하면 下野하겠다』고 말한뒤 스스로 景武臺를 물러나왔다. 그후 하와이로 떠난후 李박사에대한 批評은 이런저런 형태로 加重되기만해와 지금은 사실자체마저 가리워지게됐다는것.

李승만을 『귀족적·反민주적정치인』(宋建鎬), 『親日부화뇌동세력의 총수』(白基琓), 『美軍政관리들이 자신보다도 미국의 이익을 덜 생각하다고 나무랄 정도의 지독한 親美주의자』(金道鉉)라는 등으로 마구 써댄논문들이 세상에 쏟아져나오는것이 한심하다고 李仁秀씨는 말했다. 적어도 우뚝선 그의 人間像만은 올바르게 이해해야한다는 것이다.

李승만은 朝鮮말기인 고종12년 1875년3월26일生. 3살때 황해도에서 서울로 이사와 지금의 서울南山밑인 壽宇峴고개마루에서 살았다. 그는 과거응시연령이 한살 모자라는 13세소년으로 첫 과거응시를했다.

李承晩은 20세쯤에 배재학당에 들어가 新학문을 배우게되며 기완에 닦은 舊학문을 바탕으로『협성회회보』를 펴내는등 사회개혁운동에 깊이 참여한다.

그후 독립협회 해체와 관련하여 국가반역죄로 체포돼 漢城감옥에서 7년간 감옥생활을 한후 미국의 大韓독립 지원약속을 받아내기위한 密使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이로부터 李承晩은 1910년의 일시귀국과 1945년10월 해방된 조국에 돌아올때까지 길고도 험한 40년간의 망명생활을 했다. 망명생활은 거의투쟁의연속이었다. 첫번째 투쟁은 자신의지식체계를 확립하는 일이었다. 그는 1905년 워싱턴장로교회의 루이스·햄린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은후 햄린목사의 소개장을 갖고 名門 조지·워싱턴大정치학과에 입학했다.

李承晩은 대학과정을 3년만에 마치고 곧장 하버드대학 대학원에 입학하여 1년만에 석사학위를 받는다.

이승만은 1910년 프린스턴大에서『미국의 영향을 받은 永世중립론』이란 제목으로다시 박사학위를 받은후 對內·對外의 不絕한 독립투쟁을 벌이는데 아마도한국인유학생이란 거의볼수없던 시절에 단신渡美하여 특출한 학창을 보낸 그의 수학과정이 뒤의독립투쟁의 큰원동력이 됐음이 틀림없다.

그는 후에 미국대통령이된 조지·워싱턴大총장 우드로·윌슨을 적어도 수차에 걸쳐방문하는 親密관계를 가졌으며 상당한 지위의 美국무성관리, 베테랑 신문기자, 군인등을광범하게 사귈수있었다.

李承晩의 정계생애중 충실한 조언자가 됐던 스피치·리이터 로버트·T·올리버교수도 이때사귄 사람이었다.

李승만 연구자들의 분석을 보면 해방을 맞아 한국에돌아온 李승만은 크게 3가지 성격상의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는 朝鮮의 선비정신.

그는『公職者는 깨끗해야한다』는 신념을 끝까지 지킨것으로보인다.

公職은 私利를위해 이용되거나 理財의 수단으로 바쳐져서는 안된다는것이 조선조 선비개념. 景武臺생활 12년을 청산하고 하와이로 떠난후 世論은 한때 李承晩이 전국에 大별장만도 5채나가졌으며 프란체스카여사는 스위스은행에 巨金의 달러를 예치해놨다고 떠들썩했다.

그러나 民主黨정부때 정부에서 梨花莊을 급습, 개인일기를 포함한 모든 비품들을 실어가 이중 얼마가 그뒤 되돌아왔지만『李박사가 재산을 모았다』는 결론은 내지 못했다. 그는 하와이亡命후 옛동료들의 厚意로 셋집하나와 병원비를 얻어 지냈다.

李승만대통령의 초대비서실장을 지낸 尹致暎씨에 따르면 李승만의 사람쓰는 기준의 하나는 財産家를 피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공직자는 깨끗해야하며 재산가가 정치를 하거나 公職을 맡으면 국가이익이 아닌 개인 私慾채우기에 급급할 뿐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財産家가 공직자가 되는것은 親日派가 공직자가 되는것보다 더나쁘다고 믿었다는것이다.

李승만은 가끔『朝鮮을 팔아먹은 놈들은 자기재산지키기에 눈이 먼자들이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李승만이 경무대를 떠난후 경무대의 집수리를 맡았던목수들은 놀랐다. 대통령은 12년독재기간동안 이렇다할 집수리도 없이 재래식변소에다 다다미방을 그대로 쓰고있었던 것이다.

둘째는 極端主義的자신감.

李승만은 韓末민중운동과 美洲생활을 통해 강력한 知的경험적 신념체계를 수립하고 있었다.

그는 1940년「日本의 內幕」(The Japan Inside out)이라는 저서를 출판하면서『아시아를 먹은 일본은결국 미국을 향해 덤빌것』이라는 강력한 주장을 폈다.

李승만은 東西洋학문의 깊이가 있는 수학을 통해 스스로 예견적 지식체계를 갖고있는 것으로 믿었으며 사실 이런 예견들은 적어도 1950년대 초반까지는 맞아드는 듯 했다.

李승만의 日本 侵略주의론은 그후 太平洋전쟁으로 현실화됐다.

1945년 그가 한국으로 돌아올때 지녔던 정치관은『세계는 이미 공산세력의 그림자로 덮어질 위험에 처했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처음부터 呂運亨의 건국준비위원회나 金九·金奎植의 左右합작론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金九의 남북협상, 즉각적인 外軍철수주장, 남한단독정부 수립반대등에대한 성명을 위험한 철부지소행쯤으로 판단했다.

그는 이런 예견자적독단으로 1948년 정부수립을 강력히 추진했으며 6·25를 통해서도 흔들리지않는 자세로 위기를 대처해 나갔다.

그의 豫見者的권위는 1954년 美상하양원합동회의의 연설을 깃점으로 막을 내린다.

그는 民主·共産의 대결을 지나치게 확신한 나머지 외교의 기본상식마저 떨쳐버렸던 것이다.

그때 아이젠하워정부는 이미 한국의 휴전협정을 결심하고 東西冷戰의 완화를 구상하고 있었으나 이승만은정치인보다는 미국시민의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전략을 갖고 의회연설에서『無主見한 美행정부의 처사』를 강경한 어조로 힐난했다.

『이제 죽음의 그림자는 서울에 못지않게 워싱턴에도가까이 와있다. 소련의 수소폭탄이 한국의 황폐한 도시에 떨어지기전에 미국의 대도시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승만을 따르던 로버트·올리버는 상하양원연설초안을 미리 보여달라고 여러번 간청했었다. 그러나 결국 연설이 다 끝날때까지 내용을 알지못했다.

올리버는 그의 회고록에서 상하양원연설이후 李승만의 정치감각이 갑자기 무디어졌다는것을 깨달았다고말했다.

李승만은 그의 독단적인 예견자적 지식체계로 한국점령군사령관 존·하지장군이나 軍政관리들을 무식장이나 다루듯하던 솜씨를 결국 美상하양원합동회의에까지 연장해버렸던 셈이다.

세번째의 인격상특징은 아마도 그의 종교觀쯤 될것이다.

그는 초대국회가 열리고 임시의장으로 시명돼 연설대에 나왔을때 벅찬 목소리로『우리 다같이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제의했다.

이어 목사출신의 李允榮의원을 불러내 긴다란 기도를 하도록했다.

양자 李仁秀씨는 李承晩의 기본적인 신념체계는 기독교에 바탕을 둔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승만은 평소 3가지恨을 갖고있다고 흔히 말했다.

하나는 南北統一을 못보는것, 둘은 국가원수로서 아내가 외국인이라는것, 그리고 세번째는 자식이 없다는것.

李仁秀씨가 1961년 하와이亡命생활중 양자로 입양돼 李承晩을 방문했을때 처음들은말은 지금 누가 南北통일을 밀고있는가라는 질문이었다.

李승만은 양자에게『나라가 어떻게돼가는가』라고 물었을때『잘되겠읍죠』라고대답했더니 벌컥 화를내며『그런소리 믿지말라. 내가 그잘돼간다는 소리때문에 이지경이 된거야』라고말했다고 李仁秀씨는 회고했다.

【鄭逸和기자】

◇건국초 장관후보생들이 부지런히 李승만을만났던 梨花莊안의 組閣堂. 작디작은 건물이지만 선비정신이 깃들여있다.

否定一邊倒의 評價뿐이니

獨立운동-建國-民主신봉등엔「아카데믹한 硏究」필요

李仁秀 <明知大敎授·政治學>

1960年4月26日 李承晩大統領의 下野後 그에 관한 기사는 저널리즘도처에서 많이 볼수있지만 보다 아카데믹한 연구는 아직도 기초작업마저 시작되지않은 상태이다. 다행히 작년에는 朴日泳敎授가 올리버박사의 著書인『李承晩 秘錄』을 번역해 내었고 淸州대학교의 李鍾益박사가 李承晩박사의 在美獨立運動當時 著書인「Japan Insideout」를 새로 번역중이니 반갑다. 이와같이 연구가 부진한 많은 이유중의 하나를 하나의 신드롬(Syndrome)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거셌던 四月의 政變속에서 權力의 자리를 떠나갔던 그에게는 사실보다도 갖은 억측이나 중상의 기사가 난무하기 일수이고 민족적으로 자랑해야할 그의 공적도 고의로 덮어버리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에 현혹됨이없이 우리가 진실을알아야한다는것은 그를 어떤영광된 자리에 앉히기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어려운 시대를 보다 현명하게 살고 개척해나가기위해 현실을 바로 파악해야할 필요가 있기때문이다. 이박사는 4·19의 學生데모로 學生들이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을 찾아갔었다.

서울大學病院 병실에 들어서는 그들은 부상학생들은일제히「할아버지!」하고 소리치며 室內에는 곧 울음이 가득 찼었다. 이것은 누가 시킨것도 아닌 李박사에 對한 學生들의 순수한 마음이었던 것이다. 負傷學生을 보고 돌아온 李博士의 비탄은 이루 말할수 없었으며 이윽고 그는 자기를 지켜보는 아내에게「내가 맞아야할 총알을우리의 소중한 애들이 맞았어……이 바보 늙은것이 맞아야할 그총알을 말야!」하고 소리쳤다. 그는 政府의 부정과 부패를 규탄하고 개혁을 부르짖던 자신의 獨立協會時節의 모습을 4·19학생들한테서 본것이었다. 4·19의精神은 이것을 받아들인 李博士의 민주정신과 결코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獨立協會는 우리나라 開化期의 民主主義 훈련장이었고 그는 1898년 萬民共同會라는 시민궐기대회를 주도하였었다.

그러나 이해 12월 獨立協會는해산당하고 그는 체포투옥되어 7년의 獄苦中「독립정신」을 저술하였다. 이책에서 보는바와같이 그는 開化期에있어 민중을 발견하였고 한학상 서민의 편에 설것을 다짐한다. 그의 해외에서의 독립운동은 1904년 출옥후 高宗의 밀명을 띠고 미국 포츠머드에서 외교활동을 한데서 시작한다. 그후 그는 1910年에 이미 主權을 상실한 조국에 돌아오지만 1912년3월26일 日帝의 탄압을 벗어나 다시渡美하여독립운동에 종사하였다. 그의 독립운동의 방략은 美國宣敎宗團의 지배를 받지 않는 獨立된 韓人기독교회를 세우고 韓人기독학원을 설립하여 移民온 韓國人 子弟들에게 韓國말과 글 그리고 國史를 가르쳐 한국인으로서의 독립정신을 심어주며 韓人同志會를 조직하여 獨立運動을 추진해나가는것이었다.

이것은 독립운동이 결코短期에 성공할수 없다는 것을 투시한 장기책이었던 것이며 1948年에 독립을 선언한 유태인들의 獨立運動과도 흡사한 점이 있다. 많았던 韓國의 독립운동자들이 도중에서 지쳐서 쓰러지고 포기하고 변절하는 사태까지 있었지만 李박사의 독립운동이해방까지 美洲에서의 大宗을이루어 마침내 성공을 본것은 독립정신을 제고한 그의 이 원대한 방략에서 나온것이다. 그리고 1919年의 3·1운동은 13道 대표가 서울에 모여 漢城臨時政府를 조직케하고 그후 上海의 大韓民國 臨時政府가 그법통을이어받아 李박사는 初代대통령이 되었다. 그가 漢城臨政의 法統을 존중한 것은 海外의 독립운동이 어디까지나 國內民의 민주적역량의 소산임을 강조하여 臨政의 法統性을확실하게 하자는데 있었던 것이다.

그後 臨政內의 파쟁으로 李박사가 대통령직을 물러난 다음에도 그의 臨政支持는 이러한 이유에서 일관성있는 것이었다. 解放後 李博士는 南北분단상태를 直視하며 民族自決의 원칙하에 國權回復을 추진해 나갔다. 그는 우리民族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세계민족중 마땅히 차지해야할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開放社會 유지로 온갖先進文物을 배우고 민주정치를 시행해야 한다는것이 信條이었다. 그는 美蘇共委가 두강大國의 시간을 벌자는 술책임을 알았고 信託統治條項이 공허한것을 알았기때문에 占領軍當局에 회롱당하지 않았다. 李박사는 國權回復을 위해 對UN외교를 폈고 美國務省에 압력을 가하였으며 軍政당국과 대결하여 싸웠다. 그는 分斷韓國의 統一을 우리 韓國民이 스스로 해결해야할 문제로 보고 南韓이 실력을 갖추기 위해 共産黨의 팽창을 軍政에 對해 크게 경고하였던 것이다.

解放後의 建國史에서 李博士의 강력하고 탁월한 國權回復運動을 빼버린다면 大韓民國 政府樹立의 주체적인 의미는 사라지고마는 것이다. 그의 統一에의 意志는 정치의 현실을 직시하며 서서히 실현할 수 밖에 없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共産黨에 對한 패배주의란 어떠한 어려운때라도 그 마음 가운데 전혀 없었던 指導者였다. 金九金奎植 두분이 1948年 4月30日 이른바 平壤의 4金會談에서 도장을 찍고 南韓에 돌아와 그 實踐을 주장한 내용은 共産黨들에 절대다수를 주는 統一政府樹立案으로 그나마 그 主體가 되는 56개政黨團體가운데는 두분이 영도하는 民衆同盟과 韓獨黨이 끼어 있을뿐 右翼政黨이란 하나도 없는 것이었다. 卽 두분은 美蘇共委 소련案의 韓國版에 도장을 찍고 돌아온 것이었다. 이합의가 이루어진 배후에는 당시 北韓共産集團의 물리적 힘이 압도적으로 優勢하였고 滿洲와 中國大陸에는 中共勢力이 석권해 오고 있었다. 金奎植博士는 UN韓委에『南韓에 政府가 들어서도 共産黨앞에 얼마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었다.

軍政下에서는 韓民黨과 興士團이 연합하여 統治엘리트가되었었고 韓民黨이 李承晩 金九두분을 지지하다가 급격히 美軍政과 밀착한것은 美國務省의 해외에서 돌아온 獨立運動者들을 멀리하고 日帝下에서살아온국내엘리트를 起用하라는 지시와 資產集團의 자기이익보호를위한 권력에의 밀착과정 그것이었다. 李박사는政府樹立과정에서臨政의法統繼承을 분명히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國土가統一되어야 진정한독립이라생각했고그의統一에의집념과過信이그의汚點으로평가되는長期執權에로 이어졌으나 4·19學生데모로그에남그가듣던 민중의소리를 듣게되자 그는 학생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고 깨끗이 下野했던것이다.

학생들의 데모를 무력으로 진압하자는 측근들의 제의에 그가『不義를보고일어나지못하는 민족은 죽은 민족이야. 국민이 내가 그만둘것을 원한다면 내가 물러나면돼』라고 한것은 그가 本質的으로 民主主義의 信奉者임을 말해준다.

張吉山 <1718>

黃晳暎 作 /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78)

『그래, 네 말을 들으니 내가 미리 염려하지 않아두 되겠구나』

『저는 몸주님 되시는 단군 성조님께 맹세하였읍니다. 천지를 개벽하는 일에 제 작은 몸을 던지겠다고요. 저는 장차 여환 스님과 함께 한양의 경조 인근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선 외응할 군사 노릇을 하게될 해서의 장정들을 알아두어야만 할거예요. 맞이굿을 해주신다니 좋은 기회입니다. 비용은 아끼지 마셔야 할거에요』

『월정사에 가서 옥여 스님이나 풍열스님께도 아뢰고 의논을 드려야겠지』

『아니어요. 그이들이 비록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일은 전혀 우리들의 일이지요. 미륵님은 한 미륵님이시지만 우리에게는 삼세님도 제석님도 한울님도 되시지요. 뜻이 같다 하여도 예는 다를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의 둘레로 들어오는 백성들의 연계가 튼튼해질 거예요』

오계손은 자기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 하였다. 그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였다.

『오, 이제 보니 원향이는 어린 아녀자가 아니라 큰 만신께서 이르신대로 용녀로구나』

그리고 그들은 구월산에 대하여 의논하였는데 구월산 시루봉(甑山)에 있는 단군대(檀君臺)에서 열기로 하였다. 수십 길의 절벽 위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할만한 천연의 석대(石臺)가 있는데 옛적에 성조께서 그곳에 오르셔서 국도가 될곳을 전망한 곳이라 하였다. 시루봉 아래 패엽사(貝葉寺)가 있었는데 그 절 주승은 바로 풍열 스님을 따르던 아우뻘 되는 견심(見心) 스님이라 의탁하기도 편하였으나 원향의 의견을 따라서 그냥 사선골서 준비를 해가지고 산에 오르기로 하였던 것이다. 오계손은 원향과 함께 월정사에 올라가 보았다. 옥여 스님이 반가이 맞는데 풍열 스님은 얼마전에 강원도로 떠나셨고, 옥여는 여환 스님을 기다린다 하였다.

『동지달에 온다고 하였으니 여환당과 동행하여 금화(金化)로 갈 예정이오』

『지난번에 말똑이가 송도 가는 길이라며 들렀더군. 요즈음 은광 잠채 일에 몹시 바쁜 모양이던데. 잘무렵과 강선흥이는 노상 산채를 비우고 김선비와 최흥복이가 지키구 있다구 합디다』

『저희는 시루봉 단군대에서 금년 맞이굿을 열까 합니다. 원향이 만신 맞이굿을 겸하여 저희 계원들이 한번 모여 보려구요』

오계손이 말하였고 옥여도 반가와 하였다.

『이건 뭐 되지도 않는 중 노릇 하느라고 오박수 혼자 계를 짜는데 도와 주지도 못하였구려. 모두 얼마나 될것같소?』

『글쎄요, 여기 임거사 백련이 한무 원향이, 저, 그리고 사당말서 잡이들 하고 우리 안무당 식구만 하여도 열 가까이 됩니다. 이런 식구들이 십 여 대가 모일 것이라 백 명은 족히 됩니다. 하긴 뭐 단골들이나 동제 식구들에게까지 알린다면 온 해서가 들썩들썩 할 것입니다』

『나도 이 구월산의 생각있는 승려들과 참례하려오. 암자를 빼고도 십구사(十九寺)가 되는데 한도문으로는 이십여인이되오』

『스님만 오시지요. 승속이 다르고 허니…』

오계손이 원향을 힐끗 쳐다보며 말하였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길 ◇錦景縣◇

굶주린자를 위해

섬프란시스는『가난한 이가 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것을 달라고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먹고살도록 넌것인데 먹을것을 요구하는것은 정당한 권리라는 말이다. 우리 동양에도 옛날부터 내려오는말가운데『천불생 무록지인(天不生無祿之人)』이라는 말이있다. 하나님께서 녹없는 사람을만들지 않으셨다는뜻이다.

그러므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는것은 사회정의이다. 굶주린이들에게 먹이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사회정의를 거부하는 것이다. 한걸음 더나아가서 굶주린이들을 먹이는것은 인도다. 인간으로서 마땅히할일이다. 내 배가 부르면 배고픈 사람의 사정을 잊기 쉬운것이 인간이다. 선진을 향한 우리나라에 아직도 굶주린 형제들을 위한 구호의 손길이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다면 누가 먼저 부끄러워해야 할것인가. 한국의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자. 굶주린이에게 밥을나누어주자. 의지없는 노인과 미망인과 고아에게사랑을 공급하자.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먹이자.

땅끝에서 오다 <35>

金成一 作 / 宋龍 畵

안개속에서 온 密書 ⑧

파리지사가 인접하게 조사를 개시한다하더라도 회답이 오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었다. 준호는 피한 텔렉스의 카피 하나를 주머니에 쑤셔넣고 사무실을 나왔다.

이 무슨 괴상한 전문이란 말인가. 본래 텔렉스란 서로 분명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고있는 통신수단이었다. 뿐만 아니라 값도 비용상으로나 시간상으로나 손해이기 때문에 많은 약어를 사용하여 얼마든지 짧게 줄여보낼수도 있었다. 만일 이 텔렉스를 보낸 것이 이세원 그사람이라면 구태여 구차하게 암호를 적어 보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었다. 더구나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 그는 신속 정확하게 자기의사를 회사에 전달하는 것이 급선무였을것이다. 그런데 그는 무엇 때문에 그런 알아보지도 못할 암호들을 나열해서 보냈단 말인가.

수신자는 분명히 J·H·LIM으로 되어 있었다. 준호 자신을 수신자로 해놓고 그는 알수없는 숫자들을 적어보낸 것이다.

(…이 친구가 나를 놀리고 있는 거 아닐까?)

갑자기 얼굴에 혈기가 오르는 것 같아서 그는 눈을 감았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지금은 장난하고 있을 시간이 아니었다. 준호는 매우 불쾌한 기분을 어쩔수 없었다. 어디선가 숙명의 라이벌 이 세원이 차갑게 웃고 있는 것 같아서 그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지금 이 세원의 밤색양복을 수트케이스에 담아온 채로 서울의 안개속에 서있는 것이었다.

현관까지 내려와서 그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집으로 가야 할 것이었지만 왠 그런지 그는 자꾸만 문 영실에게로 가보아야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그는 다시 시계를 보았다. 10시 40분. 이 세원의 집은 바로 여의도의 아파트였기 때문에 가려면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겠지만 과연 이 시간에 남편 없는 여자의 집을 찾아가도 좋으냐가 문제였다.

그는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못한 채 현관문을 나섰다. 어디서 보았는지 택시 한 대가 찌익소리를 내며 바로 준호의 앞에 서고 있었다.

준호는 택시에 우선 수트케이스를 올려놓고나서 몸을 들이밀었다. 택시운전수가 미터기를 꺾으면서, 물었다.

『어디로 모실까요?』

『아,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이세원의 아파트 주소를 운전수에게 일러주고 있었다.

『이세원.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데 내가 네대신 그리로 가야 하느냐. 지금까지 줄곧 내게 패배의 모멸을 주었으면 그것으로 그만이어야지, 오늘 또 어째서 나에게 이런 역할을 맡긴단 말이냐』

운전수가 백밀러를 통해 힐끔 눈치를 보더니

『어디 외국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제법 문화국이 되었지요. 통행금지가 없어졌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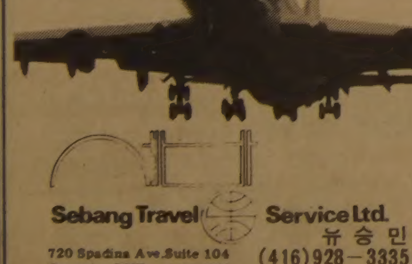
『아, 참 그렇던가요?』

IATA

세방여행사

업무안내

⊙한국·미국·캐나다·유럽등 항공권판매
⊙스키, 플로리다, 유럽등 관광패케지
⊙방문초청, 수속, 번역등 서류작성
⊙캐나다, 미국 각종대학 유학상담
⊙호텔, 렌트카예약및 기차표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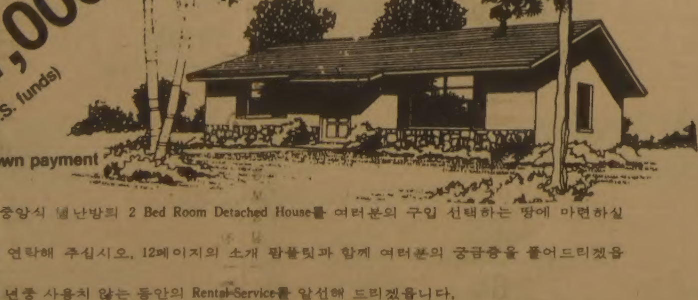
Sebang Travel Service Ltd.
720 Spadina Ave.Suite 104
Toronto, ONT. M5S 2T9
뉴 승 민
(416)928-3335
(R) 532-9581
△몬트리올(정관성)514-672-8399
△위 니 펙(이영호)204-667-8129

당신도 후로리다 휴양지에 별장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Springwood Homes inc.

아래 소개된 COTTON-WOOD MODEL HOUSE는 Golf Courses, 학교, 쇼핑센터, 교회, 공원에 인접하고 WALT DISNEY WORLD까지 1시간거리, 그리고 해변에서 10분거리의 멕시코만에 있는 Clear Water 근처의 SPRING HILL COMMUNITY에 건축되고 있는 10가지 Model의 별장중 하나입니다.

The Cottonwood *$21,000 (U.S. fu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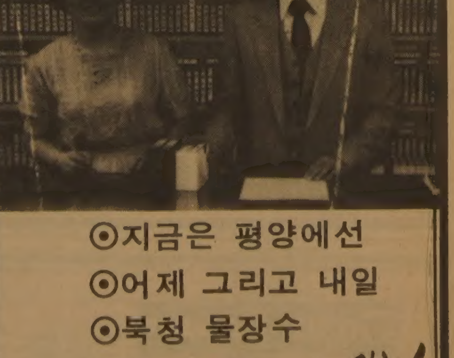
Terms min. 20% down payment

이와 같은 중앙식 냉난방의 2 Bed Room Detached House를 여러분의 구입 선택하는 땅에 마련하실 수 있읍니다.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12페이지의 소개 팜플릿과 함께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읍니다.

현지답사와 년중 사용치 않는 동안의 Rental-Service를 알선해 드리겠읍니다.

SANG ROCK INC, 일동 이영웅, P. ENG., 장복성, P. ENG., 조규열, 김동천, 권용칠, 안영운
TEL : 661-3124



⊙지금은 평양에선
⊙어제 그리고 내일
⊙북청 물장수
⊙산 유 화 등 입하!
Now 1,600테잎 보유
외국테잎 다수보유!
한국비데오센터
678 BLOOR ST. W.
☎ : 532-0210 손병헌

脫走경위 疑問투성이

——潛跡 3일째… 목격자도 없는「大盜」는 지금…

"要塞"구치감門 열쇠없이 어떻게
構內만 왕복…혼자선 逃走路몰라

「大盜」趙世衡은 어떻게탈주、3일동안 추적을피해 숨어있는것일까。전과9범이며 절도기술이 특출하다는 趙의 탈주극은 일반인들에게는 호기심의 대상이 되겠지만 범죄전문가들은 납득할수없는 여러가지의문점을 갖는다。

탈주 가장 미스터리는 탈주 방법。趙世衡이 요새와 같은 구치감을 어떻게 뚫고 박으로 달아났는지 그방법을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직 한사람도없고, 목격자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있다。

우선 검찰이 밝힌 탈주경위에서부터 의문점은 나타난다。검찰에의하면 趙는 법원구내의 구치감2층22호실 문을 발로차서 열고, 복도로나와 한쪽수갑을 풀었다。그는 이어 포승도버린채 복도벽에 붙은 환풍기를 뜯고 구치감 2층옥상으로 뛰어내려, 옷(수의)을 벗어버리고 한일병원담을넘어 행방을감췄다。

여기서 첫째 구치감 문은 어떻게 열었을까하는 의문이 생긴다。평소 구치감문은 특수자물쇠장치가 되어있어 문을 밖에서 닫으면 자동으로 자물쇠가걸려 열쇠를 이용하지않고는 열리지않게 되어있다。

교도관이 잠시 2층으로간 사이 발로걷어찼다고 되어있으나 열쇠가없는 趙로서는 밖으로 나올수는 없는것이다。

여기서 교도관이 실수로 문을 닫지않았다고 볼수있으나 2층으로내려가는 교도관이 문이닫혀있는지 여부도확인하지않고 내려갔을리는 없는것이다。

두번째는 수갑과 포승을 어떻게 풀었나 하는것이다。검찰은 2년전부터 죄수들의 탈주를 방지하기위해 출정하는 피고인들에게는 특별히 고유열쇠가 아니면 풀수없는 벨기에제 수갑을 사용하고있다。

그가 이 벨기에제 수갑과 포승을 한꺼번에 풀기란 불가능하다。최소한 교도관이 포승을 실수로 묶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갑은 혼자의 힘으로 풀기가 힘든것。계호소홀로 벨기에제가 아닌 국산수갑을 그에게 채웠다해도 수갑은 복도에서 푼것이 아니라 최소한 구치감(22호실)건물에 들어 오기전인 재판정에서부터 이미 풀어져 있었던것으로 추측된다。

그다음 환풍기의 문제。환풍기는 복도에서 높이 1.5m부근 창문 한쪽에 달려있는데 검찰의 발표처럼 절대「허술」하지가 않다。

아무리 힘이 좋아도 맨손으로 밀어내기는 쉽지가 않다。그런데 어떻게 이환풍기를 맨손으로 밀어내고 바깥쪽으로 빠져나갔는가 하는점이다。

옷(수의)을 갈아입은 과정도 석연치가 않다。웃도리를 벗고 속에 입었던 노란색 T셔츠차림이라고 해도 아랫바지는 헐렁한 남청색의 수의로 누구나 죄수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게 된다。때문에 팬티차림이 아닐경우 바깥으로 달아나지 못했을것이다。수의 바지는 발견되지 않고있다。때문에 옷이버려진 구치감2층옥상이나 병원세탁물 건조장 지붕에서 다른바지를 수의바지위에 더 입었을 가능성이있다。누가 그바지를 구치감 2층옥상이나 병원쪽에다 미리준비했을까。

여하튼 趙는 한일병원을 빠져나올때는 완전하게 변장을 끝마쳤을것으로 추리된다。한일병원 구내나 문밖에서 사건전후「이상한 사람」에대한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고있다。

공범과 사전계획 趙의탈주사건 전후의 경위로 봐 치밀한 사전계획과 공범이 있을것으로 보인다。탈주가 너무나완벽하게 이뤄졌으며, 잠적 3일이 지났음에도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다。▲趙는 평소 교도소 생활을 해도 탈주할 생각을 전혀하지 않는 최소한의「준법정신」을 가지고 있다(교도소에서 신사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때문이다)。

그런 그가 이번 교도소에 들어가기전 탈주 루트를 사전에 답사해보거나 챙기지 않았을것이며, 이를 전제로 할때 교도소와 법원구내만 왕복한 그가 법원 구내의 구치감 뒤쪽의 사정을 각본처럼 딱맞아 떨어지게 알리가 없다。구치감3층 복도→2층옥상→구내매점지붕→병원담→병원구내 세탁물건조장 의 루트는 남의도움없이는 알수없는 도주로이기 때문이다。

▲도주에 필요한 옷, 돈, 신처 그리고 도주에필요한 장을 혼자힘으로는 장만하기가 힘들것이란점등 이상 3가지로 미루어 누군가 1명이상의 공범이 있을것으로보이며 치밀한 계획을 짰을것으로보인다。

그러면 이번사건에 교도소내의 공범은 없을것인가。최소한 한 구치감에 있었던피의자 3명은 소극적인 공범으로 볼수가 있다。어떠한방법으로든 이번 탈주를 도왔을 가능성은 크다。그들은 趙가 문을박차고나가는데도 쥐죽은듯 조용했다。그들은 복도의 환풍기를 뜯는곳까지는 함께 행동했을 가능성이 있다。수갑을 푸는것도 도와줄수있다。

또하나 교도관들중 이번사건과 관계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탈주시기 趙의 탈주 시간은 14일 하오 2시40분 직후로 보여진다。趙는 하오 2시부터 40분간 재판정에 있다가 교도관들의인솔로 구치감 3층 22호실로 옮겨졌다。직후 교도관들은 2층으로 내려갔다。그들이 탈주사실을 안것은 하오3시25분께。적어도 2시40분~3시25분 사이의 40분간사이의 어느순간 趙는 밖으로 달아나 여유있게 행방을 감췄다。趙가 탈주를 계획한 시기는 2월24일부터로추측된다。

그날 그는 무기징역과 10년의 보호감호의 예비적청구라는 이례적 구형을 받았다。과거처럼「죄어야 7년」이란복역기간이 아니고 아무리 모범수노릇을 해도 몇십년간의 감옥생활을 면치못하게 된것이다。이미 그는 재판부에탄원서를 내는등 백방으로 구명운동을 벌였으나 허사로끝났고 그러자 탈주를 생각하기 시작했을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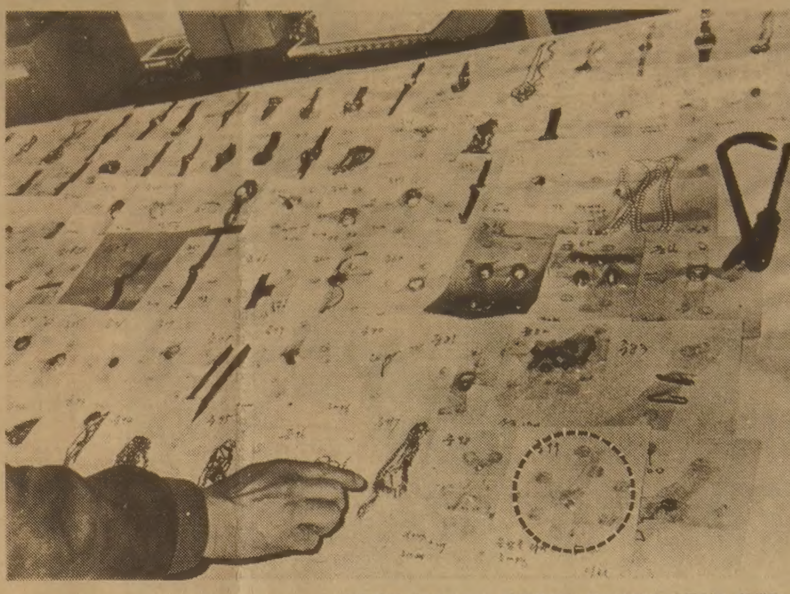
이번사건의 촛점인물로 떠오른 부인 羅英씨(홍콩체류)와의 관계도 미묘하다。그가 부인과 살던 盤浦아파트(25평)의 전세금 1천9백만원이 이번 탈주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것으로보인다。전세금은 지난2월말께 부인 羅씨의 동생이 찾아갔는데 그후사용처가 분명치않다。

은신 趙는 서울을 빠져나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그가 과거에 잠시 도피처로 사용했던 사찰등은 이미 경찰의 수사망에 걸려있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목을 받지않은 사람도 사찰등지의 장소를 택할경우 남의 눈에 띄기 쉽기때문。머리좋은 그가 일부러 그런곳을 택하지는않았을것이며 사창가나 유흥지도 피해있을것이다。

서울의 주택가나 아파트촌에 숨어있을 가능성도많다。이를 뒷받침하는것은 공범자 鄭允龍씨(서울西大門區弘濟洞)의 부인 梁모씨에게건3차례의 전화이다。그는 이전화에서『돈을가지고 弘大입구로 나오라』고 말했으나 이는 오히려 수사망을 흐리게하기위한 술법으로 보아도 된다。도피를못해 전전긍긍하는 인상을 주기위한것이아닌가 여겨진다。

수사관의 생리를 그누구보다도 잘아는 그가 추적자의 발길이 닿을것이 확실시되는 곳에 길게 간격을 두고 장소를 지정하면서까지 나오라고 할리는 없는것이다。

趙는 서울의 어떤집 어느 곳에 숨어있을것이 확실시된다。이런 이유로 그는 당분간은 추적자의 손에서 벗어날것이며, 자칫하면 장기간의 추적수사가 불가피하게될지도 모른다。당분간의 시간을 번뒤 해외로 탈출할 가능성도 있다。탈출과 도주 은신에서 그는「大盜」답게 세상사람들을 놀라게하고있다。【姜秉泰기자】



◇寶石商 뺨치는 贓物 엉뚱하게「大盜」라는 별명을얻어 유명해졌던 손큰절도 趙世衡。탈주극을 벌여 더욱 유명해질셈이었던가。趙가 훔쳤다가 검거됐으며 같이 압수된 장물들。고급시계, 다이어먼드가 주렁주렁달린 보석반지, 진주목걸이, 순금마고자, 고급만년필, 화제의 물방울다이어(점선내) 등등이 보석상을 연상케한다。바른쪽에 있는것이 유일한 범행도구인 드라이버와 쇠지레다。

「共犯수사」端緖못잡아

면회객 집중조사 빠른檢擧 어려울듯

趙世衡(39)의 법원탈주사건 수사본부는 16일 하오까지 趙의 공범관계를 집중수사하면서 은신처를 알아내려했으나 단서를 얻지 못했다。

수사본부는 趙가 탈주3일동안 단골장물아비집에 전화를건외에는 전혀 흔적을 남기지않고있어 목격자마저 없어 趙가 자수하지않는한 趙를 검거하는데는 상당한시일이 걸릴것으로 보고있다。

이에따라 수사본부는 경찰과함께 현상금을 내걸고 한편 趙가 외국으로 밀출국할것에 대비, 봉쇄령을 내리고 趙의 연고지에 수사대를 보냈다。

수사본부는 趙가 구속된후 지난해 12월부터 탈주하루전인 13일까지 면회왔던부인羅英씨(34) 공범 鄭允龍피고인(37)의부인 梁모씨(32) 趙의 의(義)동생申모씨(30·무직·서울江南區 三成洞)등 친척친지 9명을 중심으로탈주를 도와주었는지여부를 조사중이다。

수사부에 의하면 이날면회일지를 정밀분석했는데 이과정에서 趙의탈주를도운 공모자가 외부에서 탈주로와은신처、도피자금을 마련하는등 면밀한준비를 해준것으로 보인다는것。

한편 수사본부는 지난2일이후 趙世衡의동생을 가장한 梁씨가 친구趙英子씨(35·서울江南區新沙洞산5)의 주민등록증을 소지, 3차례나 趙씨를 면회하고『밖의일은 다 준비해 두었으니 걱정말다』며『수민이 엄마집』이라며 趙가 탈주후 3차례나 전화를걸었던 자기집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고 또 申씨는 사건당일 趙의재판을 방청했다는 점을들어 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있을것으로보고 두사람의 신병을 확보, 추궁중이다。

趙英子씨는 趙世衡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20일전『梁씨가 남편과 趙世衡씨를 동시에 면회하려하니 주민등록증을 빌어달라고해서 빌려주었다가 趙가 탈주한날밤8시께 梁씨로부터 돌려 받았다』고 말하고있는데 梁씨는 이주민증으로 신분을 속이고 趙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크다。

趙英子씨는 梁씨와10여년전부터 같은동네에서 살아 가깝게지내왔는데 趙가탈주한날저녁 자신이경영하는南大門시장안의 양품점에찾아와『일이다끝났으니 누가물으면사실대로 말하라』며주민등록증을 돌려 주었다는것。

수사본부는 또 梁씨와 趙의 의동생인 申씨도 외부에서 몇차례 전화를 했고 만난적도있어 趙의 탈주를 도왔는지 여부를 캐고있다。

이밖에 趙의 호적위조등을 도와준일이있는 方모씨、친지 李모씨、이모 李모씨、가까운사이인 모요정마담 문모씨등 연고자 10여명에 대한 수사도함께 벌이고있다。

수사본부는 또 趙의 부인 羅씨가 홍콩에체류중이고 면회일지에「홍콩」이 자주거론된점으로보아 국외로 달아날 가능성에대해서도 경계를 강화하는 한편 귀금속가게나 전당포등에 침입、재범할것에 대비, 방범을 강화하고있다。

한편 입회교도관이 작성한 趙의 면회일지에는 탈주를암시하는듯한 알송달송한 문구가 곳곳에 보이는데 지난4일에는 趙英子씨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에게『4월7일까지 나갈지도 모르겠다』고했고 지난해말께 면회온부인 羅씨에게는『내가 말한대로 마음굳게먹고 기다려라。주위사람의 말에 동요말라』고 말하기도했다。

수사본부는 또 趙의부인 羅씨가 여권을 발급받도록 홍콩에서 초청장을 보내준 티나양이 지난달말께 귀국해 서울中區 프라자호텔에 투숙했다가 趙가탈주한 지난14일께 출국했다는 사실과 趙가 검거되기전 평소 부인 羅씨에게『미국 로스앤젤레스와 홍콩에 건너가 한국음식점을 경영하고싶다』고 말한점으로보아 해외도피를 할 가능성이 있을것으로 보고경계를 강화했다。

현상금6백만원·傳單12만장
공항·항만 봉쇄

趙世衡검거에 현상금 6백만원과 1계급특진이 내걸렸다。

서울구치소와 치안본부는 16일 趙의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한 사람에게 현상금 3백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趙의 사진이 실린 현상수배전단(사진) 12만장을 전국에 배포했다。

한편 치안본부는 현상금과 함께 범인검거에 공이 큰 경찰관에게 1계급특진을 약속했다。

경찰은 또 趙가 외국으로 도피할 가능성도있다고 보고 전국의 공항과 항만을봉쇄、검문검색을 강화하도록 아울러 지시했다。

서울구치소가 배포한 전단에 의하면 趙는 1백76cm의 키에 체중 73kg으로 얼굴은 긴편이며 광대뼈가 나오고 콧날이 오똑하며 눈은 작은 편이다。

또 머리는 스포츠형이나 가발을 쓸 가능성이 있고 서울 말씨를 쓰는 것으로 돼있다。

한편 범인趙는 구속된이후 장발형의 머리를 깎인 탈주당시 약간 긴 스포츠형 머리였는데 趙가 가발을 쓰고 피신했을 가능성도 높다。

◇수배전단의 趙世衡

檢事6명 搜査동원

서울지검은 16일 趙世衡탈주사건수사를위해 특수부1·3부검사 6명을 동원、1부는 경찰수사를、3부는교도관수사를 각각 지휘하도록 했다。

서울拘置所長 해직

법무부는 16일 趙世衡탈주사건에 책임을물어 李禎世서울구치소장(교정이사관)을 직위해제하고 후임에 朱姶杜 光州교도소장(교정부이사관)을 직무대리로 전보발령했다。

拘置監 현장검증

서울지검 특수1부 鄭相明검사는 16일하오 수사과직원들을 동원, 趙世衡이 탈주한 경위를 정확히 밝히기위해법원구내 구치감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서울大여학생 강제추행은 機關요원아닌 전과자所行"

서울지검 南部지청

검찰은 16일 서울大여학생이 전경대원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언비어에 대해 조사결과 전혀 사실과 다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南部지청은 安基孝씨(22·강간등 전과4범·주거부정)를 절도혐의로 구속기소、『기관원이 여학생을 추행했다는 유언비어는 安의 범행으로 비롯된 것이다』고 말했다。

검찰에의하면 安은 지난3월초 서울大구내매점에서 학생수첩을 구입、수첩에 정치학과3학년이라고 기입、가짜 서울大생행세를 하면서 같은달12일 하오9시께 冠岳캠퍼스 중앙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사범대1년 金모양(18)에게 접근、교내서클을 소개해 주겠다며 4·19탑뒷산으로 유인、목을조르고 각목으로 위협하면서 강제로 추행을 했다는것。

폭행을 당한 金양은 이 사실은 평소 친분이 있던 사범대 수학과4년 安모군(27)에게 이야기했고 安군은 같은달 19일하오6시께 중앙도서관앞에서 또다시 여학생을 꾀던 범인 安을 붙잡아 서울冠岳경찰서에 넘겼다。

서울大여학생의 강제추행설은 지난달 중순께부터 서울大에 퍼지기 시작、최근까지 서울大의 각종시위때마다 학생들이『여학생이 기관원에게 추행당했다』며『진상을 해명하라』고 요구해왔었다。

11흥아號 어제새벽
무연탄 화물선 침몰
船員8명 숨져

【釜山】東海港에서 무연탄 6백톤을 싣고 馬山으로가던 화물선 제11흥아호가 15일새벽 부산 五六島앞바다에서 악천후와 갑자기몰아닥친 풍파로 침몰돼 선원8명이 숨졌다。

화물선의 선원9명은 배가 침몰하기전 모두 바다에뛰어들었으나 선장 조우흥씨(47)만 헤엄쳐 살아나오고 나머지선원들은 그뒤 시체로발견됐다。【聯】

李始榮선생 추도식

省齋 李始榮선생의 추도식이 16일상오11시 옛서울고교자리의 現代강당에서 있었다。

省齋선생은 임시정부의 일원으로 독립운동을하였고 해방이후에는 초대부통령을 지냈으며 1953년 85세를일기로 타계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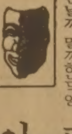
이날 추도식에는 尹潽善 前대통령 俞鎭午 蔡汶植 金埈成 柳致松씨등이 참석해 선생의 뜻을 기렸다。

5行뉴스

◆밀가루부침먹고2명숨져

【光州】지난14일상오10시께 전남 光山郡西倉面西倉里 劉栗生씨(68)집에서 劉씨부인 田홍연씨(68)가 만든 밀가루부침을 먹은 田씨와 손자 劉官군(7)등 2명이 숨졌다。

永遠한 대결
「大盜」를 두번잡았던 尹男善경사
"그의 길목 잘알아…판정승 自信"



훔친물건이많아「大盜」라 할때는 미흡했으나 영화장면처럼 탈주한뒤「大盜」라는 표현은 과장으로만 느껴지지 않는다。그러나 이러한 그도 서울東大門경찰서 형사계 尹男善경사(56·사진)를 생각하면 회심의 미소만 짓고 있을수는 없으리라。尹경사는 지난해 11월28일 趙를 붙잡아 大盜의 가면을 벗긴 베테랑 형사。

지난해 洪白厚경사등과 함께 大盜의 목을 죄었던 尹경사는 趙의 탈주소식을 들은 순간『역시 큰놈이구나』하는 생각과 함께 일생에 한번 만날까 말까하는 영원한 맞수」처럼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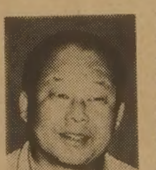
그리고『이번에도 내가 잡아야 한다』는 의욕이 용솟음쳤다。그후 3일간 그를 잡기위해 정신없이 뛰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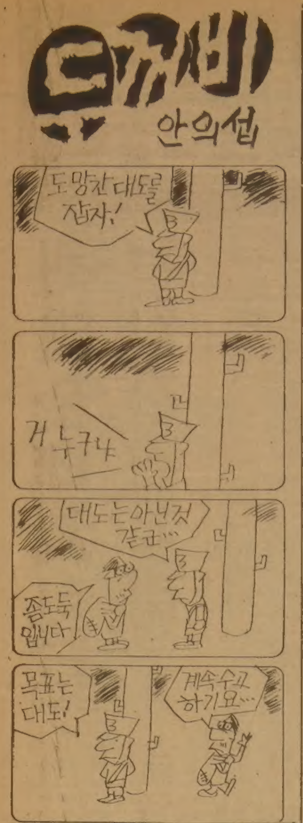
尹경사와 大盜의 대결은 75년 4월과 지난해 11월28일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이때문에 누구보다도 趙의 솜씨와 습성을 잘안다。趙가 영화를 좋아한다는데, 특히「시실리안」과「지하실의멜로디」에 출연한 알랭·들롱의 우수에 싸인 모습을 흉내냈고 불교에 눈을 떠 사찰과 암자를 즐겨 찾는다는 것등…。

尹경사가 趙의 진면목을 세상에 알리게된것은 지난해6월24일이었다。이날 하오7시께 동대문경찰서관내인 梨花洞에 살고있는 전국회의원 申東寬씨집에 도둑이 들었다。마침 당직을하다가 현장에 달려간 尹경사는 쇠창살을 뜯어낸 수법을보고 趙의 솜씨임을 한눈에 알수있었다。

이때부터 5개월간 뒤를쫓기시작했다。영화관이란 영화관은 다 가보고 낙산사·송광사등 전국의 사찰과 암자를누비고 다녔다。형사들은 불교신자가아니면서도 절에 갈때마다 부처님께 시주를하고『빨리 잡게해달라』고 기원하기도했다。지난해 11월28일 6개월만에 오토바이를 타고가는 趙를발견, 포니차로 밀어붙여 잡았다。趙는 그때『형님을 다시뵙게 됐군요』하며 태연하게 말하더니 알랭·들롱이나 된듯것처럼 눈동자에 우수를 담더란것。

『그가 숨을 만한 곳은 다 더듬어볼 예정입니다』자신만만하다。이번에도 그는 판정승을 거둘수 있을까。【朴榮基기자】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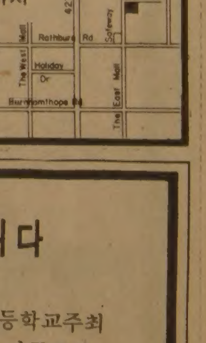
운전학교
PRINCIPAL DRIVING SCHOOL
* LEARN DEFENSIVE DRIVING *
●이론과 실기 그리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빠르게 습득하도록 지도함.
CPDEA MEMBER
☎ 221-7783. 789-1679

Grant Brown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247-7161

●한국의 하나뿐인 여성週刊誌!
●단연 部數도 정상、내용도 頂上!
주간女性
컬러畫報 立體편집
새 시대를 사는 현대 여성의 다정한 벗!
구독신청·한국일보사
THE KOREA TIME LTD.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ario M6H 1Z7

구독 신청서
지방구독자 $2.50+90¢(우송료)
NAME ……
ADDRESS …… APT
CITY …… PROVINCE ……
POSTAL CODE ☐☐☐ ☐☐☐ PHONE ……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 드리는
한인식품
한인에 필요한 식품 생활필수품 일체
연중 무휴 아침10시부터 밤10시까지
시내 전역과 근교 무료배달


15 West Deane Pk. Dr. (east mall Plaza)
Etobicoke Tel. 622-2643 대표 손덕수

정정합니다

지난 19일자 경복고등학교주최 고교대항배구대회및 야구대회 참가교 회장 회의는 6월26일이 아니고 4월26일(화)로 바로 잡습니다.

City of Toronto

Firefighters

Applications are invited for the position of Probationary Firefighter.

Preference will be given to residents of the Metropolitan Toronto Region. Shift work is involved.

Successful applicants on completion of six weeks of training at the Toronto Fire Academy, will work under supervision of senior officers to combat fire; perform rescue work; administer first aid; operate and maintain fire fighting apparatus and equipment, including the maintenance of fire stations; and to inspect properties and equipment for fire hazards, etc.

Qualifications:

Applicants must:

- Be legally entitled to work in Canada (those legally entitled are Canadian citizens, Permanent Residents (Landed Immigrants), or hold a Special Minister's Permit).
- Possess a valid Ontario Driver's Licence. Possess or be able to qualify for a Class 'D' Licence within the Training Period and be able to prove safe driving ability.
- Have a minimum of Grade 12 education or equivalent, with evidence of training or experience in related trades, first aid, rescue work, etc. Must be able to communicate clearly and precisely in English in an emergency.
- Be of a physical stature with weight proportionate to height to be able to work under arduous physical conditions as part of an active fire fighting and rescue team. Meet vision standards without corrective lens (generally 20/30 in each eye) and have no significant abnormalities in colour vision.

Applicants with the above qualifications will be required to pass a preliminary written examination, consisting of understanding instructions, mechanical aptitude, judgement, reasoning and reading; and subsequently to pass a thorough medical examination, a physical agility test and a physical risk factor evaluation and vital capacity test.

Some knowledge of fire fighting practices and terminology would be an asset.

1983 Salary Range: $22,618 - $32,312 per annum with excellent fringe benefits.

Further information and application forms may be picked up from the Toronto Fire Academy, 895 Eastern Avenue, Toronto or from the Public Information Desk, Main Floor, New City Hall between the hours of 8:00 a.m. and 8:00 p.m. and must be returned to the Fire Academy or to City Hall by April 30, 1983.

533－2361

남녀선수11명 北歐 주니어卓球에 파견

대한탁구협회는 금년도 스칸디나비아주니어오픈탁구대회에 李正鶴(광성공고) 李桂仙(이일여고) 등 11명의 남녀선수를 파견키로 했다。

◇파견선수

李正鶴(광성공고) 朱龍漢(시온고) 朴相哉(동아공고) 朴知賢(신흥고) (이상남자) 李桂仙(이일여고) 金仁順(신일여상) 尹正治(이일여고) 金英美(서울여상) 崔錦玉(안양여고) (이상여자)

메아리

同名

金昌悅 <編輯委員>

얼마전 신문에 結義兄弟한 同名異人 절도얘기가 실렸다。공사판에서 만난 30대의「朴鍾烈」과 20대의 또 다른「朴鍾烈」이 형님·동생하며 1백32차례 절도행각을 하다 붙들렸다는 기사다 (3월15일字본보10면)。

아마 이 기사를 보고、섬뜩한「姓名哲學家」는 무릎을 쳤을지도 모른다。그게 다 이름 탓이지 — 하고。

그러나 이 기사를 씁쓸하게 보았을 선량한「朴鍾烈」은 아마 자칭「姓名哲學家」보다 훨씬 많았을 줄안다。서울시내 전화번호책을 보아도「朴鍾烈」「박종열」「박종렬」로 표기된 이가 1백27명이나 된다。이들로 대표되는 많은 사람이、말하자면 그 기사에보인 이름의 피해자인 셈이다。

「大盜」趙世衡의 이름 석자도 마찬가지다。그렇게 흔한 이름이라 생각되지는 않는데도、서울시내 전화번호 책에는、그의 同名異人이 11명이나 올라있다。그중에는 국회의원까지 지낸 有名人도 끼어있으니、단단히 有名稅를 무는 꼴이 될것같다。역시 이름에서 온 뜻밖의 피해다。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은、같은 漢字圈3나라중에서도 유별나다。거의다가 3字 이름인데 그 3字를 가지고 家門、行列까지 밝힌다。그러다 보면、아무래도 同名異人이 많게마련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姓氏는 2백49개뿐이며、金·李·朴·崔의 4大姓이 전체가구의 50%를 차지한다 (75년企劃院조사)。게다가 行列字를 빼면、개인앞으로 붙여줄 이름字는 한字뿐인데、그나마 즐겨쓰는 글자가 별로많지않다。

이런 사정은 76년에나온 朴安企교수의 조사『한국인의姓과名의 분포』에 잘 나타나있다。

그에의하면 57만명을 조사해서 집계한 이름字는 모두 3천9백5字、이들을 조합한 이름은 도합 26만8천개다。얼핏 다양한듯하지만 실정은 그렇지가 못하다。

첫째 이름字가 쓰이는 빈도의 문제가 있다。조사대상자의 이름중 94·9%는 흔히 쓰는 글자 5백字로 된 것이다。僻字를 쓰지 않은 대부분의 이름에 同名異人이 많을 수 밖에 없다。

다음은 同音異字의「한글同名」이 많은 것이다。가장 흔한 이름「영자」는 27개의 同音異字名이 있으나、音만 따진「영자」는 조사대상자중에만 근 3만명 (0·48%)이나 있다。音만을 따져서 집계해본 57만명의 이름은 모두 3만2천개。단순 평균을 해도、조사대상자중 17명씩의 同名異人이 나온다는 계산이다。

이래서、특히 大姓을 가진 사람중에 同名異人의 혼란을 곧잘 겪는다。4大姓아닌 姓氏중에도 姜·康·強、方·房·龐·邦、張·蔣·章·莊、柳·俞·劉씨등「한글宗氏」가 많아서、한글 표기의 同姓同名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

이 점은 생활의 實感으로도 알만한 일이지만、마침 국회도서관이 펴낸『議政30年史料』에 역대 국회의원 명단을 가·나·다順으로 정리한 것이 있다。여기오른 이름은 1천3백남짓인데、그 가운데 글자까지 같은 同姓同名이 7건、音만을 따진 同姓同名은 24건이나 된다。한 국회에서 의석을 나란히 했던 경우도、8대의 두 張德鎭의원、10대의 朴浚圭의원과 朴俊圭의원、9대의 朴燦의원과 朴璨의원、7대의 金貞烈의원과金正烈의원、4·7대의 李敏雨의원과 李敏祐의원등이 보인다。생각보다 同名異人이 많음을 알만하다。

여하간 이름의 첫째 구실이 개인의 識別이라면、되도록 同名異人이 없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추세대로 漢文지식이 줄어 늙과 함께 僻字를 쓴 특이한 이름은 줄어 들게 마련이고、이름의 한글 표기는더욱 보편화 한다。결국 同名異人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면 同名異人의 혼란과、그의 피해아닌 피해를 줄이는 방도는 없을까。

물론 있다。

이름을 지을 때 생각해야 할것은 여러가지겠으나、순수한 우리말의 한글이름이 同名異人을 없애는 한가지 방도가 된다。한글이름으로 사람들의 이름이 다양해지는 만큼 同名異人이 줄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한글 이름의 장점은 여러가지다。부르기 쉽고 쓰기쉬우며、들어서 아름다운 우리말의 語感과 뜻을 살릴수가있다。더하여 이름으로서의 첫째 기능이 漢字이름보다 온전할 수 있는 것이다。

아직은 한글이름이 좀유별난듯하지만、앞으로 더욱 늘어날것은 틀림이 없다。그것이 한글世代의 당연한 귀결이다。그에 맞는「이름文化」「姓名哲學」아닌「이름哲學」의 연구와 개발이 있어야 할것을 생각하게 된다。

咸學洙, 올해 첫 滿壘홈런

해태金奉淵 침묵깨고 6打點

엎치락뒤치락 4팀共同2위

프로야구

「핀치는 내게 맡겨라」7―0으로 리드당하던 5회말 대타로 나선 三星1번 咸學洙가 역투하던 MBC의 에이스 河基龍의 초구를 통타、금년시즌 첫만루홈런으로 징검다리를 놓고、7―7로 동점을 이룬 7회말 6번李萬洙가 역전결승2점홈런를 터뜨려 三星·라이온즈가 MBC·靑龍을 10―7로 제압、大邱홈구장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처음 단독선두의 기쁨을 누렸다。

4회까지 7―0、MBC는 2회초 李海昌의 2점홈런、4회초 李鍾道의 3점홈런등 장타로7점을모으고 河基龍의 호투로 三星타선을묶어 승리를 장담하고있었다。

5회말 三星은 河基龍의난조로얻은 無死만루의 찬스에서 운명을걸고代打 咸學洙를 기용했다。

지난해 三星선수로는 가장많은 51타점으로 三星의 후기우승에 공헌했던 咸學洙。그러나 금년시즌 의외로 부진、레귤러 자리마저 빼앗긴 형편이었다。

河基龍의 초구를노린 咸學洙의 타구는 환호하는 우중간 외야석 스탠드 깊숙이 꽂혔다。

활기를 되찾은 三星타선은 7회말 金漢根·張孝祚·朴承昊의 3연타로 7―7의 동점을 만들고 6번李萬洙의 결승2점홈런으로 장쾌한 역전 드라머에 종지부를 찍었다。

仁川팬들에겐 우울한 날이었다。20타수 2안타로부진에 빠져있던 해태의 홈런王 金奉淵은 16일仁川에서 벌어진三美슈퍼스타즈와의 1차전서 1회초 柳鍾天、5회초 任昊均、7회초 甘四用으로부터 차례로 2타점 적시타를 빼앗아 6타점을 올려 해태에 10―4의 승리를 안겨주었다。

三美는 홈경기서 4번모두 패배、선두자리를 빼앗겼다。

OB·베어스는 大田홈경기서 롯데에6―3으로승리、三美、롯데、MBC와 4팀 공동선두를 이루었다。

◇16일전적·

◆인천

해태	200	030	302	—10
삼미	201	000	001	—4

▲홈런=金戊宗(9회·2점·해태)金鎭雨(1회·2점)朴俊英(3회·이상삼미)

◆대구

MBC	022	300	000	—7
삼성	000	041	41×	—10

▲홈런=李海昌(2회·2점) 李鍾道(4회·3점·이상MBC) 咸學洙(5회·만루) 李萬洙(7회·2점·이상삼성)

◆대전

롯데	000	002	010	—3
OB	000	320	010	—6

▲홈런=禹京夏(6회·2점) 金用熙(8회·이상롯데)

◇중간순위 <16일현재>

팀	승	무	패
①삼성	4	1	3
②삼미	4	0	4
②롯데	4	0	4
②MBC	5	0	5
②OB	5	0	5
⑥해태	2	1	3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 · 2361

壯士넷 첫誕生

민속씨름 李俊熙、洪顯旭 눌러

한국프로씨름의 장사4명이 처음으로 탄생했다。16일 장충체육관에서 속행된 제1회 천하장사 민속씨름대회 3일째경기서는 태백·금강·한라·백두등 4체급의 장사가 가려져 각각 3백만원씩의 상금을받았고 각체급별로 순위가 결정됐다。

전날경기서 1진 靑龍으로 선발된 21명의선수들은 이날 각체급별로 6명이 3판양승제로 풀리그전을벌여 1~6위까지 순위를 정했고、2진 白虎는 단판선승제로 최상위자등을 뽑았다。

청룡의 가장가벼운 체급인 태백장사급(75kg이하)은 장사타이틀을놓고 6명이 혈전을 벌인끝에 朴振台(29·현대중공업)가 장기인 잡치기등으로 5승무패를 기록하며 장사타이틀을 차지했다。또 근강장사급(75kg이상)에서는 孫相柱(21·영남대)가、한라장사급(85kg이상)에서는 崔旭珍(23·경상대)이 각각 전승으로 장사가 되었다。

한편 가장 무거운체급인 백두장사급(95·1kg이상)에서는 강력한 우승후보로지목되던 洪顯旭(25·현대중공업)이 대학선수 黃永浩(21)에게 2―0으로 1패를 기록한후 전날 청룡선발전에서 2―0으로패했던 李俊熙와 재대결、첫판을 또패했으나 연속 두판을 안다리걸기와 들어배치기로 제압、2―1로 이겼다。

이에따라 洪顯旭과 李俊熙 黃永浩는 3승1패의 동률을 이뤄 장사선발을위한 단판경기를 벌여 李俊熙와 洪顯旭이 1、2위를 놓고 대결한끝에 다리가 긴 李가 바깥다리걸기로 洪을 눕히고 장사가 됐다。

◇청룡

▲태백장사급=①朴振台(현대중공업) 5승②李永泰(22·경남대) 3승2패 ③金龍鎬(25·부산공동어시장)3승2패④李熙允(20·경남대)3승2패·이상 순위결정전⑤方澤坤(21·동아대) 1승4패 ⑥金才坤(29·현대중공업)5패

▲금강장사급=①孫相柱(21·영남대) 5승②高敬鐵(20·인하대)4승1패③金鍾鐸(전주대)3승2패④金大會(전주대) 2승3패⑤金三植(22·경상대) 1승4패 ⑥金景洙(현대중공업) 5패

▲한라급장사=①崔旭珍(23·경상대)5승②李萬基(20·경남대) 4승1패③康始吼(25·부산공동어시장) 2승3패④趙秦浩(25·부산공동어시장)2승3패⑤劉在鉉(22·경상대) 2승3패·이상 순위결정전⑥金光植(24·현대중공업)5패

▲백두급장사=①李俊熙(25·부산공동어시장) ②洪顯旭(25·현대중공업) ③黃永浩(21·동아대) 4승1패·이상 순위결정전④張志洙(21·인하대) 2승3패⑤崔相一(25·서울) 1승4패⑥朴龍雨(23·단국대)5패

韓日 여자실업排球 경기日程 확정

韓日 여자실업배구 3강전 (19~21·장충체) 경기일정이 확정됐다。

한국 여자실업배구 1·2·3위팀이 격돌하는 3강전은 올해 1위팀인 現代와 히다찌가 日本서열리는 히로시마평화주대회에 출전하는 관계로 2·3·4위팀끼리 맞서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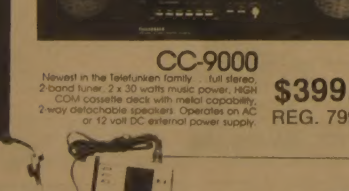
日本2위의 유니티카는 세계적인 단신세터 오가와、손거포 미즈하라、수비가 좋은 터치아웃 스파이크가 일품인 히로세、왼쪽주공 와꼬등 대표선수4명을 보유하고 있다

3위팀 도요보에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대표팀 세터를 맡아왔던 노장 尹英乃(前미도파)가 주전세터로 활약하고있으며 대표선수인 이노우에·히데꼬(178cm)가、4위팀 [illegible]는 181cm의 미가다·사아、185cm의 [illegible]무라·마사꼬등 두대표급 장신들을 보유하고있다。

한국에서는 美都波·道路公社·韓一合纖등이 출전한다。

TELEFUNKEN
SUPER SPECIAL SALE

Studio 1M Hi Fi
The ultimate in portable stereo sound 2 x 60 watts music power, 4-band tuner, HIGH COM cassette deck with metal capability, detachable 3-way speakers. Operates on AC, 12 volt car/marine battery, regular and rechargeable batteries
$699.00
REG. 1295.00



CC-9000
Newest in the Telefunken family ... full stereo, 2-band tuner, 2 x 30 watts music power, HIGH COM cassette deck with metal capability, 2-way detachable speakers. Operates on AC or 12 volt DC external power supply.
$399.00
REG. 799.00

NOW ONLY
$ 3499.00
Reg. $5,000 or less

CF-100
Portable stereo cassette player and FM radio in one compact unit! Pre-select any three FM stations and choose by pushbutton. Plays all tapes including metal. Supplied with carrying case, headphones, demo cassette and batteries.
$99.95
REG. 239.95

STEREO KING
Audio - Video - Sales &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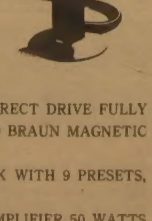
AKG
AIWA
SANSUI
SHERWOOD
S.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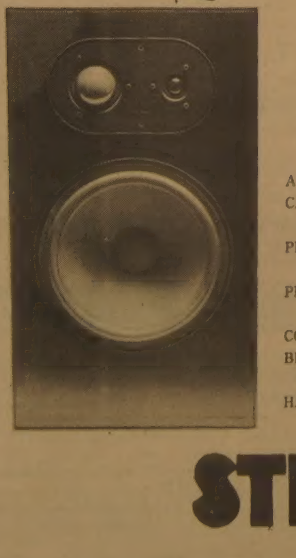
SHARP
TELEFUNKEN
GRUNDIG
NORDMENDE
INFINITY
JENSEN

N / W / E / S — Dundas St. — Pacific Ave. — Keele St.

2989 DUNDAS ST. WEST
TORONTO, ONT. M6P 1Z4
PHONE: (416) 766-4770
김 봉 훈

BRAUN





BRAUN P-1 TURNTABLE : QUARTZ LOCK DIRECT DRIVE FULLY AUTOMATIC, WITH LOW MASS TONE ARM AND BRAUN MAGNETIC CARTRIDGE.

BRAUN T-1 TUNER : DIGITAL QUARTZ LOCK WITH 9 PRESETS, PLL-MOSFET FRONT END, AM-FM LW.

BRAUN AMPLIFIER : LOW DISTORTION DC AMPLIFIER 50 WATTS PER CHANNEL LED OUTPUT LEVELS.

BRAUN C-1 CASSETTE DEDK : 3 MOTOR, ALL SOLENOID, WITH CONVENIENT MOTORIZED CASSETTE DRAWER METAL TAPE CAPA BILITY.

BRAUN L6070 HE SPEAKERS : 3 WAY SPEAKERS WITH 70 WATTS HANDLING CAPACITY.

STEREO KING
Audio - Video - Sales & Service

AKG
AIWA
SANSUI
SHERWOOD
S.A.E.

SHARP
TELEFUNKEN
GRUNDIG
NORDMENDE
INFINITY
JENSEN

N / W / E / S — Dundas St. — Pacific Ave. — Keele St.

2989 DUNDAS ST. WEST
TORONTO, ONT. M6P 1Z4
PHONE: (416) 766-4770
김 봉 훈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컴퓨터 식자 서비스
컴퓨터 식자기를 이용하여
책을 만드실 분 문의 바랍니다. ☎ : 533—2361

식 당

아리랑식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구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리아하우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국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울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웨이트레스 구함.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레스토랑(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 (금천루)
사천요리 전문, 단체손님 환영(280석)
전화 491—4058 신영식, 하주용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za) 일식전문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피자(RESTAURANT & TAVERN)
▲피자 $50~$100주문—10% 할인/$100이상—15% 할인.
5310 Yonge St. 전화 : 226—1146 Mr. 정

오 ! 인천 식당(O'Inchon Restaurant)
한식·일본식·양식·주류일절 취급. ※웨이트레스 급구함.
1112 Yonge St. 전화 : 921—4468 박승흥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일요일 정상 영업(오전 11시~오후 8시까지)함.
★교회, 동창회, 결혼, 회갑, 피로연등 단체구입손님에게 특별할인봉사.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울식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혜숙 조성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김승수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양 장 점

샘터의 상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숙녀복전문집 미라지
디자이너 드레스/파티복/스포츠웨어/평상복
676 Bloor St. W.(한국비데오옆)530—1870 Mrs. 권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 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세계여행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일여행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미여행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방관광여행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안 경 점

블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 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0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O. K. Auto Body
◉완전수리 ◉신용으로 책임 ◉토잉 써비스
138 Sixteenth St. Tor. 전화 : 251—9889 김희삼

장 의 사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장의사(McDougall & Brown)
성실과 신뢰로써 봉사합니다.
646 St.Clair St. W. Tor. 전화 651—5511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 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20%~30% OFF
(B)252—4857. (R)252—6602 Mr. 유(분납 가능)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철

국제한약상사. 각종 한약재 수입도산매 전문.
원로중국한의사 진영익 봉사. 수입보약재 할인판대
(녹용, 웅담, 해구신, 십전대보탕)
55 Kensington Ave. (쥬이시 시장내)
전화 : (B)593—5238. (R)759—4012. 최호권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IN KYU KIM R.I.A.)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명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BUSINESS TAX AND ACCOUNTING SERVICES
Accountant 김희체(David). 15 Jansusie (Albion & Kipling)
전화: (B)677—3270. (R)743—0782

이영철 회계사 M.P.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전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RUOFF
다이야몬드·각종보석
Wholesale 가격 !
◉각종 보석 디자인
◉Custom 디자인
◉보석 수리전문
50% OFF
345 Bloor St. E. Toronto
(Ent. 79 Huntle 전화 : 922-8350

구 인

APT 룸메이트구함. 시내에서 10분.
1 Room과 리빙룸. 월200불. 즉시입주가능함.
#1410, 55 Triller Ave.(직접내방요) 전화 : 624-0098

여자 룸 메이트구함.
학생환영. 오후10시 전화.
전화 : 593-6228

지렁이 잡으실 분
좋은 농장 준비돼있음.(다운타운)
전화 : 533-7759

"거구장"
경험있는 요리사와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전화 : 742-1618.

새 장비를 갖춘 버라이어티상점(Soter)
메니져 구함.(월수입 3,000불 보장. 약간 보증금요)
전화 : 1-727-6665 (AURORA)

급구 가게맡아서 하실분. 년매상 26만불.
Stock만 지불. 렌트 700불. 조건없음.
1-(705)454-3411 Jim

Korean Village Restaurant
주방 남자헬퍼 1명, 여자헬퍼 1명구함
628 Bloor St. W. Tor. 전화 : 536-0290.

주말에 일할 경험있는 남자헬퍼 구함.
전화 : 883-1956(오전중) Mr. 리.

가정에서 재봉일 하실분구함.
(오바록과 공업파워미싱소유자로서 유경험자)
상세한 문의는 전화 : 530-1046(오후6시이후)

무비가게에서 일할 여자분 구함.
영어, 한국어 능통한분.
전화 : 494-7830 낮, 925-1331 밤

샌드위치 커피숍에서 일하실 분 구함.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유경험자 원함.
직접 내방바람. (오후 3시~5시30분까지) 금~토
55 University Ave. Mrs. 한.

(1) 가정교사
(2) 미용실에서 일할 분(학생도 가능)
(3) 미용 기술자. 전화 : 532-7094(B)

〈새동네 펜팔클럽 회원모집〉
금번 본 클럽에서는 모국과 캐나다사이에 사업연결 또는 배우자관계 등등. 그리고 양자, 양부모 희망자등에 관심있으신 분에 한해서 선착순 약간명을 모집합니다.
상담 기간은 4월18일부터 22일까지 그리고 매월 2일간 봉사합니다.
•유자격 : 만30세-60세 전후
•기 간 : 월-금(오후1시~5시까지)
•전 화 : 530-1046
새동네 펜팔클럽회

한국일보 안내광고는 내보신 분만이 그 효과를 압니다.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구 혼

신부 구함. - 진실하고 건강한 여성 구함 - 저는 45년생 (시민권 소지자)으로 개인가게를 갖고 있음. 꼭 관심있는 분만 연락바랍니다. 전화 : (B)273-3920, (R)273-9821 Mr.리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개인지도

피아노 레슨
Royal Conservatory 시험준비. All Level.
전화 : 669-5517 Mrs. 리 (Steeles & Bathurst))

지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Ceramic)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현대자동차	477-0202

교민단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5-2091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77-1884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44-3716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영남향우회	249-6830
송공문화협회	444-3658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593-8943
'88 올림픽후원회	622-3674

매 매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Nobleton)
9년 리스
전화 : 859-4554

맥스 프랜차이스 매매
오샤와 지역
전화: 1-723-8632

전망좋은 버라이어티 매매
주매상 $5,500. Asking $60,000+스탁
꼭 관심있는 분 연락바람. 전화 465-4358 Mr .김

금고를 이용하세요!!
•완전써비스 •각종모델 •100불부터 보험가입
•자세한 사항은 690-8950 David

그로서리 가게 매매. 해밀톤 지역.
Gross Income 월 $6,900. 아스킹 $4만+스탁
전화 : 1-560-6400 Mr. 정

Fruit Store(과일가게)
Plaza안에 있고 좋은 Turnover
전화 : 745-2300 Jim Taylor, Re-Max West Realty inc.

보석및 선물가게 매매
비즈네스가 잘되는 시계및 보석취급으로 오래전에 세워진 가게임. 전화 : 531-4486(낮), 635-0511(저녁)

빵가게 (프라자내)
$50,000(도구 포함). LEASE(5 YRS)
Dufferin & Steele, Call Susan Tallilo 745-7551

이익 좋은 버라이어티 가게 매매.
일요일 문닫고 2층에 살림집 있음.
자세한 문의는 전화 : 266-4866.

3개월 사용된 선반달린
20 ft. Vegetable Cooler 급매
전화 : 421-6880 Mr. 리

건물달린 버라이어티가게 매매.
Subway 옆.
자세한 문의는 537-5164 Mr. 박

일본식당 매매. 술 라이선스 있음.
장소 Laird Dr. 아스킹 $80,000. 주매상 $6,000
(B)421-6016, (R)421-2258(토·일 주말) Mr. 마즈다

아파트달린 도나스가게 매매. 좋은 위치
년매상 $234,000. 아스킹 $160,000.
장기 Rent(18년). 전화 : 782-7409 Mr. 배

버라이어티가게 매매. 5년리스(렌트 $1,100) 아스킹 4만+스탁(로타리오머신 및 비데오머신 2대)
전화: 535-1916

밍크직매점 후랜차이스 매매
다운타운 호텔안에 있음. 연수입 보장.
약간의 보증금 요함. 전화: 532-8662, 535-7878

★웅 담★
캐네디안산. 증거물 있음.
여러 크기. 가격 : $70
전화 : 534-7786 (저녁)

최신형 고급 카메라(신품) 매매
라이카 M4-P, 90mm 렌즈, 와인더, 메타, 케이스
Regular 가격 : $2,500. 파는 가격 : $1,740
★ 꼭 사실 분만 연락요망.
전화 : 630-5474

버라이어티스토아 이사관계로 매매
2 Bedroom 아파트와 차고 포함
12만9천불+Stock(해밀톤) 전화 : 1-389-7755 Mr. 차

배더스트 & 윌슨 지역 HOUSE 매매
Asking Price: $156,900 4 Bed Rm. 2층집
Rose Hersh Ltd. 전화: 633-7777 Mrs. Jacobaso

(1)위치 좋은 드라이브·인 햄버거 플레이스.
주매상 $6천. 리스 1994 + 5년옵션 Rent $1,800
(2)시간짧은 스모크 & 버라이어티. Subway 입구에 위치함.
주매상 $3,500. Rent $400. Asking $3만5천.
(3)Fish & Chips Store. 5일오픈. 주매상 $2,500. Rent $725.
Asking $7만9천.
(4)여자혼자서 운영할수 있는 Pick up 드라이크리닝 런드리멧. 주매상 $1,000. 렌트 $750. Asking $2만5천.

전화 : 741-9170. Mrs. Woo. A.E. LePage Ltd.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1주에 $15로 귀하가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수 있읍니다. 안내광고 : 533-2361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댄 스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를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 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1 Vaughan Rd. (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 (김 만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2-5754(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순꽃집(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도서판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충원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438-0628(R) Mrs. Oh

스타미용실(Mrs.김)◉남·녀커트 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화~토: 9am~8pm. ◉매주 월요일만 동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Brokerages Inc. (강학수종합보험)
P.O.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전화 : 622-5147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얼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 유웅복 (R)447-9395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SKYLINE REAL ESTATE LTD.
김종조 651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5-0028

이대환부동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CHARGEX VISA
★한국일보 : 533-2361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지개 칼라-촬영 전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생 선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회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선물센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60 Bloor St. W.
전화 : 533-8110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향섭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훠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ZENITH, R.C.A., PANASONIC, 각종제품.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ㅇ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ㅇ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W.
535-9541 MR. 김

금주로 박두

83년 4월 23일 · 토 오후 6시

힐튼 · 하버캐슬 호텔 1층

One Harbour Square Frontenac Ballroom

연예프로그램

향수어린 정서가수 장 연 화
매력적인 드럼의 주자 권순근과 ADD—K
사회의 거장 지미 · 김 / 이쁜이 강 종 희

미인에게 파격적 대우

진 / 서울왕복표 · 현금 $1,500등 상품다수
선 / 현금 $500등 상품다수
미 / 현금 $300등 상품다수

금주로 박두

주최 : 토론토한국일보사

후원 : 한인연합회, 토론토한인회, 영사관